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학위논문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 언론 보도 분석 연구

- 3개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현 미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 언론 보도 분석 연구

- 3개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우 지 숙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현 미

김현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이 석 원 (인)

부 위 원 장 권 일 응 (인)

위 원 우 지 숙 (인)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11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2016년 검찰의 사건 수사 재개 과정을 통해 재점화된 이슈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집중 보도한 국내 주요 일간지 3사의 언론 보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4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증상을 앓는 임산부 환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활 화학물질에 의한 첫 사망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생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사회가 인지하고 이러한 위험을 생산 및 통제하는 사회 제도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논의와 성찰을 시작하게 된 공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생활 화학물질 및 국민 건강을 다루는 자세의 문제점을 짚고 어떤 해결책이 더 필요한지, 또 향후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성찰을 제고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Beck, 1992; 노진철, 2004).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공적 재난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전달하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 프레임을 통해 정부, 기업, 국회, 언론, 시민 단체 등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인식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검찰 재수사가 시작된 2016년 1월부터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가 개최된 8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들 가운데 보도건수 상위 3개 주요 일간지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기사 553건이다.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8개월의 분석 기간을 이슈점화-이슈확산-이슈진정 3단계로 구분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슈 재점화 이후 언론이 전달하는 사건 관련 정보의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분석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여 주로 어떤 프레임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각 이슈 진행단계 및 언론사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이 해당 이슈에 대한 쟁

점 및 우리 사회의 위험 관리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사건 진행 단계 및 언론사별로 언론 보도 프레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담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성향이 각기 다른 세 언론사 모두 이슈확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하는 등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슈진정 단계에서 언론사별로 보도 비중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공공 이슈임에도 사건 해결과정에서 언론사별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언론사들은 실명 정보원을 직접 취재하는 방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보도의 비중이 분석적 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심층분석 및 탐사 기사를 후속 보도하고 있어 질적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특정 단계에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한계 역시 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언론은 전체적으로 도덕성 프레임과 문제해결 프레임, 국가책임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진행단계별로 보았을 때 사건이 진행될수록 도덕성 프레임의 비중이 낮아지고 문제해결 및 국가책임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진상규명을 지지하며 사회 내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론사별로 보았을 때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기업의 도덕적 책임, 이해주체들 간 갈등, 금전적 보상 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다른 두 언론사는 그에 비해 국가적 책임에 대한 보도에도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언론사별로 사건 진행 과정 및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언론사는 모두 자극적이거나 위기감 또는 무력감을 드러내기보다 인위적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보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언론은 각자의 인식프레임에 기반하여 양적, 질적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프레임을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언론만이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 없으나 언론은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 간 인식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재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통제, 관리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있는 집행과 시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가습기살균제, 언론보도, 프레임, 심층성, 현저성

학 번: 2014-23551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 1  |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 4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 6  |
| 제 1 절 언론 보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 6  |
| 1. 이론적 배경 .....                      | 6  |
| 2.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          | 8  |
| 3. 재난/참사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 | 10 |
| 4. 언론 보도 심층성에 대한 선행연구 .....          | 11 |
| 제 2 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개요 .....         | 13 |
|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        | 13 |
|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            | 20 |
| 제 3 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 .....   | 21 |
| 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 23 |
| 제 1 절 연구 문제 .....                    | 23 |
| 제 2 절 연구 방법 .....                    | 26 |
| 1. 연구 분석 대상 .....                    | 26 |
| 2. 연구 분석 방법 .....                    | 27 |
| 제 4 장 분석 결과 .....                    | 38 |
| 제 1 절 언론 보도 빈도와 추세 분석 .....          | 38 |

|                                   |    |
|-----------------------------------|----|
| 제 2 절 언론 보도 심층성 분석 .....          | 41 |
| 1. 전체 기사의 심층성 요소 빈도 분석 결과 .....   | 43 |
| 2. 언론사별 심층성 요소 빈도 분석 결과 .....     | 45 |
| 제 3 절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          | 50 |
| 1.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 | 50 |
| 2.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     | 53 |
| <br>                              |    |
| 제 5 장 결론 .....                    | 57 |
| 제 1 절 연구의 결과 및 함의 .....           | 57 |
|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보도의 양적 특성 .....   | 58 |
|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보도의 심층성 .....     | 59 |
| 3.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보도의 프레임 논의 .....  | 60 |
| 4. 연구 결과의 함의 .....                | 61 |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 63 |
| <br>                              |    |
| 참고문헌 .....                        | 64 |
| Abstract .....                    | 68 |
| 부록 .....                          | 72 |

## [표 목 차]

|  |    |
|--|----|
| <표 1> 2016년 1~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일지 .....                | 15 |
| <표 2> 언론 보도 심층성 요인의 조작적 정의 .....                     | 31 |
| <표 3> 언론 보도 프레임 분류와 조작적 정의 .....                     | 35 |
| <표 4> 3개 언론사의 모집단과 10% 표본집단 기사의 수 .....              | 37 |
| <표 5> Krippendorff's Alpha 측정에 따른 항목별 코더 간 신뢰도 ..... | 37 |
| <표 6> 3개 언론사의 언론 보도 추세 .....                         | 38 |
| <표 7> 3개 언론사의 이슈 진행단계 보도 빈도 .....                    | 40 |
| <표 8> 전체 기사의 심층성 요소 세부 항목별 빈도 .....                  | 43 |
| <표 9> 언론사별 기사의 유형 분포 .....                           | 45 |
| <표 10> 언론사별 취재 방식 분포 .....                           | 47 |
| <표 11> 언론사별 정보원 분포 .....                             | 48 |
| <표 12>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포 .....                   | 51 |
| <표 13>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포 .....                       | 54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3개 언론사의 언론 보도 추세 (그래프) ..... | 39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 사회는 그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시기에 따라 불거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왔다. 그 가운데에는 위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생활 속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최초의 살생물제 참사로 2014년의 세월호 참사, 2015년의 메르스 사건과 함께 일상에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으로서 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biocide, 살생물제 또는 생태계교란물질) 피해사례로 분류되고 있다(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서의 보고와 함께 2011년 다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병원 측의 조사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신부 환자의 입원 증가’ 현상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2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발표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나 이후 기업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최예용 외, 2012). 그러나 2016년 1월 검찰의 전담수사를 기점으로 이슈가 재점화되었으며, 사건 발생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정부를 비판하였으며, 정당들이 이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합의를 보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sup>1)</sup>.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 속의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첫 사망사건이자 현대 산업사회의 인위적 재난과 일상의

1) 2017년 1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신문 2017년 1월 20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승윤 기자)

위험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공적 성격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벡(Beck, 1992;2006)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로 정의된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과 제도를 매개로 발생한다(박희제, 2014). 이러한 위험은 결국 이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문제로, 위험에 대한 정의와 위험 분배에 대한 고민, 갈등, 해결이 곧 현대 산업사회의 제도가 갖는 성격과 방향에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벡, 1992). 이러한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맹신과 이를 이용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동, 그리고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한 국가의 안이한 관리/규제 체계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인위적 재난인 것이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무엇을 통해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여온 여러 인재(人災)들을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를 보듯 현실정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성찰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높은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초기에 대한 경우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이슈 재점화 이후의 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만에 크게 진전되는 바 없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해결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고 있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담론의 지속적인 형성과 문제 해결로의 연결이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는 후속 백서나 참고문헌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슈 재점화 시기부터의 사건 진행 과정과 방향에 대해서는 2016년도의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언론은 다양한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거나 조망할 수 없는 독자들이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슈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김태원, 2016). 또한 백은 오늘날의 위험에 대해 파편화된 전문 영역과 개인 영역을 공공성 아래 통합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론의 매개적 역할을 주장한 바 있다(Beck, 1992).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물질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깊지 않고 사건이 재점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개인은 더욱 외부적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Seigrist & Gutscher, 2006). 위험 상황에서 언론은 이러한 개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사회적 성찰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노진철, 2004).

또한 언론이 심각한 위험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표현방식을 통해 전달하는지는 수용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igner & Endreny, 1993/2003; 안은영, 2016 재인용). 그 예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들은 언론의 오보와 왜곡된 속보경쟁,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 전달을 문제 삼고 세월호 참사 이슈가 사회적 성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영욱 외, 2015; 김태원 외, 2016; 임연희, 2014 등). 이러한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는 언론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보도하였는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인식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개로 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사회에 직면하여 사건을 대하는 태도 및 정책 연구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과 언론 보도 프레임의 방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이슈 재점화 이후 언론의 보도량과 보도 심층성을 분석하고, 국가의 위험 관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언론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해당 이슈에 관련된 쟁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떠한가? 특히 이슈가 재점화된 이후 언론은 어떤 메시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단순히 사건이 진행되는 바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이 이 위험 이슈에 대해 가지게 된 각자의 인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성격과 속도가 급변하는 다매체 시대에서 언론은 이슈의 선택과 공중의제화의 측면보다 이슈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프레임 노출 효과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식에 영향력을 미쳐 사건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형성한다’ (McLeod & Detenber, 1999)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프레임 분석 연구에 본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최근 연속적인 참사에 직면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및 사건 진행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 조망하고 나아가 위험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시기와 각 언론사별로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담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디어의 주요 공적 이슈로 재점화되기 시작한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3대 일간지의 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개 주요 일간지는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이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정치적 성향에 있어 『조선일보』가 보수적 입장을, 또 『경향신문』이 진보적 입장을, 그리고 『한국일보』가 중도적 입장을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독자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주목하여 집중적인 보도를 이어왔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사건이 주목받은 2016년에 기사량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보도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수집한 주요 일간지들 가운데 이 세 개의 언론사가 사건 관련 보도량 상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전체적인 특성과 성향에 따른 보도 특성을 함께 파악하기에 좋으며 프레임 분석에서 각 언론사별 차이와 특성을 충분히 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수집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네이버 뉴스검색 기능을 이용,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추출된 기사를 전량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사설, 칼럼, 사진 및 단신 기사와 키워드에 의해 추출되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였으며, 인터넷과 지면 게재로 인해 중복되는 기사가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핵심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보다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택하고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하였다.

수집한 기사들에 대해 우선 전체적인 언론 보도 빈도와 추세를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보도의 심층성 요소를 토대로 사건 관련 언론 보도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언론 보도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된 프레임 유목에 따라 프레임 속성에 따른 기사의 빈도 차이를 각 시기별, 각 언론사별로 살펴보아 어떤 프레임이 강조되는지, 또는 시기나 언론사별로 보이는 프레임의 차이 또는 강조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별,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행정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언론 보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이론적 배경

프레임(frame)이란 Entman의 정의에 따르면 ‘인식된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해 텍스트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다(Entman, 1993). 그는 언론 보도 프레임을 통한 뉴스의 재구성과 전달 과정에서 개입되는 선택과 현저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언론 보도에 있어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현저성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아무리 언론이 특정 프레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더라도 양적으로 빈약한 언론 보도는 주목받기 어려우며 수용자들에게 특정 프레임이 인식의 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의가 내포하는 바는 프레임이 단순한 현상의 반영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구조적 재현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력을 끼쳐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McLeod & Detender, 1999). 예를 들면 사회문제에 대한 일화/서사 중심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접한 수용자는 사회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특성과 자질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Iyengar & Simon, 1993).

즉, 언론 보도는 뉴스 프레임링 과정에서 수용자의 현실 인식과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이동훈·김원용, 2012). 이러한 뉴스 프레임 분석은 이슈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Pan & Kosicki, 1993) 프레임 구축을 통해 이슈의 어떤 측면이 선택 또는 부각되는지, 어떤 측면이 무시되거나 사상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박선희, 2001). 즉 언론 보도 프레임은 텍스트를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기록한 권력의 각인(imprint of power)이라는 것이다(Entman, 1993; 윤순진 외, 2010 재인용).

한편, 오늘날과 같이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뉴스의 단순한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뉴스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Picard, 2006). 특히 수용자의 욕구와 관련하여 2008년 한국신문협회의 신문독자 프로파일 조사 결과에서 독자들이 심층보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 사회에서 독자들은 뉴스의 양에서는 만족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측면에서 심층성을 갖춘 뉴스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유진술, 2015).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2016년 초 재조명받기 시작한 이후, 들불처럼 일어났던 가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운동, 국회 청문회 개시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재논의 등이 올해 8월부터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은 어떤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어떤 프레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프레이밍 이론의 측면에서 앞서 든 Iyengar(1991)의 예처럼 언론이 일화/주제 프레임을 현저하게 강조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여론과 정책결정자들은 이 사건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 피해자와 기업, 또는 피해자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구도의 프레임을 현저하게 강조할 경우 여론은 이를 기업과 피해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갈등구도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사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 분석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영욱 외, 2015). 한편 재난보도와 관련된 프레임 분석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레임 유목을 설정하고 언론 보도를 분석한 바 있다(김춘식 외, 2014). 한편 Semetko와 Valkenburg는 1997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 개최 기간 동안 2601개의 신문기사와 1522개의 TV 뉴스 보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책임성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총 5개의 프레임에 따른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Semetko & Valkenburg, 2000).

본 연구에서는 Semetko와 Valkenburg의 프레임 연구를 참고하여 연역적 프레임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갖는 특성을 귀납적으로 반영하여 총 7개의 프레임을 선정하고 3개 일간지의 언론 보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지 프레임 변화나 사회구조적 담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론 보도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적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과정과 정책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이슈와 담론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로 인식된다(김태원·정정주, 2016). 프레임 분석은 사회적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표면적인 평가를 넘어 본질적으로 대립과 갈등 논의에서 상충되는 가치, 이야기 구조의 모순, 강조점이 다른 텍스트 구성 등의 구성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비판이 가능하다(고영신, 2007)는 데서 해당 사건을 종합적이고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언론 보도 분석은 이슈 재점화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과 방향성, 그리고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담론 형성에 있어 언론 보도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은 의제 자체보다는 미디어로부터 공중에 전달되는 이슈의 현저성(salience)에 관심을 갖는다. 미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디어가 지정한 이슈의 현저성이 공중에 의한 이슈 현저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채플힐(Chapel Hill)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채플힐 연구이다(McCombs & Shaw, 1972; McCombs, 2004). 이 연구의 가설은 미디어가 선거 캠페인에 관한 주요 이슈들의 의제를 강조하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수많은 연구들에서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 간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언론이 특정 이슈를 어떻게 설정하고 설정된 이슈가 수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파악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Lang & Lang, 1983; Wanta, 1991; Weaver & Elliot, 1985; 조수선 외, 2004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주류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만이 아니라 대안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 가능성을 증명한 연구(윤태일 & 심재철, 2003)가 있으며,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가 포털 뉴스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최민재 & 김위근, 2006; 이동훈,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의제설정이론은 단순히 미디어의 보도 현저성이 공중에 전이된다는 것만으로는 여론의 다양한 변화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공공의제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발생하여 ‘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사회적 현실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프레이밍 이론이 등장하였다(Scheufele, 1999; 우지숙·최정민, 2015 재인용). 프레임(frame)을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심적 아이디어 또는 스토리라인” 이면서 “사건의 쟁점과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 이라는 Gamson과 Modigliani의 정의(Gamson & Modigliani, 1987; 우지숙·최정민, 2015 재인용)를 바탕으로 미디어는 복잡다단한 현실문제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 특정 관점에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 프레임은 이를 접하는 시청자/독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프레이밍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프레이밍 이론은 전통적인 여론 형성 및 의제 설정에 대한 모형이 간과하고 있던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해석과정’에 주목하여 미디어의 메시지가 구성되는 방식과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이준웅, 1997; 이준웅, 2005 재인용).

이러한 프레이밍 이론에 대한 연구는 언론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프레임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관련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탐색,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실험이나 서베이를 통해 정보 해석, 인식 프레임, 의견 등에 미디어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나현정·민영, 2010; 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이준웅, 2005 등). 공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의 분석 연구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공적 이슈에 대해 갖는 다양한 시각과 틀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며 기사를 통해 미디어 프레임을 접하는 수용자들의 해석적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우지숙·최정민,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2016년 이슈 재점화 이후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빈도 및 추세와 같은 양적 특징과 기사의 유형, 정보원, 취재 방식을 통해 기사의 질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선정하여 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의제설정 이론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을 띤다. 프레이밍 이론

에서 보듯이 언론은 이 사건이 재점화되어 공공의제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인식틀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여론과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보도의 현저성, 심층성과 함께 프레이밍 이론에서 강조하는 보도 프레임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어떤 프레임이 부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3. 재난/참사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던 화학물질에 의해 위험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임산부가 희생된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보건환경 참사이며, 현대 산업사회가 가지는 위험성의 요건<sup>2)</sup>을 충족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재난으로 분류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한편으로 재난보도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재난보도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승관과 강경수(2011)는 재난보도를 “특정 시점에서 발생되어 특정 지역에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재 또는 자연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백선기와 이옥기(2012)는 “단순히 재난 그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예방 역할까지 포함하는 보도” 라고 정의하였다.

재난보도 프레임에 대한 국내의 주요 연구로는 구미의 불산누출 사례에 대한 보도 행태 분석(김현정·한미정, 2014), 2011년의 일본대지진(백선기·이옥기, 2012), 송례문 화재사건(김성진·박경우, 2009), 대구지하철 참사(송종길, 2003) 등이 있다. 이들은 프레이밍 구축에 대한 분석보다 취재 체계가 부실한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태원·정정주, 2016). 그리고 2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내언론의 문제점

2) “(...) 인간의 평상시 지각능력을 벗어나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협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위협의 확산과 상업화에 의해 자본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상승시키며, 이러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협은 특수한 정치적 폭발력을 갖는다.” (Beck, 2006).

등을 보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김영옥 외(2015)의 연구는 언론의 세월호 참사보도에 대해 프레임과 정보원, 재난보도준칙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정보원의 활용 또한 프레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재난보도준칙 가운데 언론사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감정적 표현 조항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여러 세월호 관련 참사보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사고 중 가장 오랜 기간 보도된 세월호 참사가 기간별로 보도의 성격이 ‘사회성’에서 ‘정치성’이 강화되는 등의 면모를 보여왔으며 종국적으로 정치적 담론화 현상까지 보여왔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태원·정정주(2016)의 연구는 현재까지의 프레임 연구의 한계로 지목되는 정적인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시기별로 분류한 재난보도 프레임에 접목하여 뚜렷하게 성향이 구분되는 두 언론사의 세월호 보도 성격, 이슈 및 주요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한 재난 사건을 넘어 사건의 성격이 ‘사회적’, 그리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 프레임의 이슈 진행단계별 변화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4. 언론 보도 심층성에 대한 선행연구

언론 보도의 심층성이란 곧 ‘보도의 깊이(depth of reporting)’로, 특정 사안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 경과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확보된다. 이러한 뉴스의 심층성은 체계화된 취재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실을 전달하는 각종 보도 기법에 따라 깊이 있는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Altschull, 1984; Schudson, 1995). 앞서 보았듯 뉴스의 심층성은 다매체 환경에서 뉴스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태 아래 공적 이익을 위한 다양성 확보와 질적인 정보 전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의 품질 저하 현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보 수용자의 욕구와 관련하여 더욱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 뉴스의 심층성은 뉴스의 현저성과 함께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준웅, 김은미(2004)의 연구에서, 한국 TV 뉴스의 경우 평균 길이 77초 내 앵커리드와 본문, 마무리로 구성된 정형화된 리포팅 형식으로 보도 내용 또한 대부분 과정이나 결과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사안에 대한 기자의 심층적 분석이나 배경 자료의 다양성 부족으로 뉴스 가치의 부정성이 높아지면서 뉴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더불어 사회적 영향성이 낮아져 뉴스 수용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의 심층성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유진술, 2015). 보도의 깊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여전히 논의가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심층성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하위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기사의 유형은 대표적인 심층성 파악 요소이다. Barnhurst와 Mutz(1997)는 일찍이 사건 중심 보도(event-centered coverage)와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를 심층성의 기준틀로 사용하였다. 특히 단순 보도는 사실의 과편화, 일화적 갈등성, 선정적 또는 인간적 흥미 위주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남재일, 2004). 사건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만 하는 단순보도에 비해 강도 높은 인터뷰, 장시간에 걸친 정보 수집 및 관찰, 취재에 의한 심층적, 분석적 보도는 내용적 측면에서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다(유선영, 1995). 국내 연구들 가운데에서는 국내 언론의 단순 취재 관행과 짧은 기사 길이, 적은 취재원 등을 특정하며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유선영, 1995; 이재경, 2006; 남재일, 2005 등). 이에 반해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는 직접 취재, 보도자료 외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함께 다룸으로써 정보의 깊이와 적극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 하위개념으로 정보원은 심층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Rich(2003)는 인물정보, 기록자료, 온라인 출처 등으로 정보원을 구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인물 및 자료를 모두 정보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성희, 2004; 박재영, 이완수, 2007).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는 대체로 익명정보원을 활용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이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사건의 원인 규명 등에 있어 정보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명 정보원이나 공적 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속 익명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관점의 제시 여부를 통해 기사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검증하고 보도 심층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분쟁적이고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적 사안을 다룬 기사에 한하여 관점이 제시되는 양태를 분석하는 것은 기사의 심층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PEJ, 2005; 박재영, 2006). 이와 관련하여 단일 정보원을 통해 일부의 견해나 관점만 보도한다는 것은 뉴스 정보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낮추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유진술, 2015). 이외에도 언론 보도의 심층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하위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하위개념들을 참고하여 기사의 유형, 취재방식 및 정보원 요소를 통해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심층성을 분석할 것이다.

## 제 2 절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개요

### 1.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가슴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일반공산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들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4~5월 급성호흡부전 증증 폐렴 진단을 받은 산모 4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살균제가 가슴기에 잔류하거나 또는 가슴기 사용시 물과 함께 섞어 사용됨으로써 수증기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사람의 폐에 들어가 폐섬유화를 진행시켜 폐조직을 급속하게 굳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이 치명적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이다. 가슴기살균제에는 여러 유기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나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영향력 파악 및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이를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제조상품으로 분류,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발생 보고는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서 47%의 치사율 사례 보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2011년 급성 호흡부전 증상의 임산부 환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수 입원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측의 조사요청이 질병관리본부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질환의 요인으로 추정’ 된다는 중간발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 하였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폐손상 의심 신고사례의 조사방식을 두고 정부와의 이견으로 마찰을 빚다 2013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재개하였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결의안을 발의하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5년 말부터 3차 피해접수가 시작되어 2016년 1월 4일 종료되었다. 또한 2014년 보건당국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청회 및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 및 방안을 결정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반대와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방안이 분분하게 논의되는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분석기간 내 주요 사건일지는 하단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2016년 1~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일지

| 일시              | 사건   |
|-----------------|--|
| 2016.1.19.      | 국회 환노위 장하나 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가족모임 국회에서 기자회견                                   |
| 2016.1.2.       | 검찰, 9개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핵심 임직원 자택 및 연구소 2차 압수수색                                   |
| 2016.1.15.      | 검찰, 해당 업체 3차 압수수색  |
| 2016.1.17.      | 피해자 및 가족들,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
| 2016.3.23.      | 피해자들, GS리테일 등 10개 업체 추가 고발   |
| 2016.4.3.       | 검찰, 옥시측 의뢰로 실험보고서 제출한 서울대 연구팀 조사   |
| 2016.4.15.      | 검찰, 전문가 통해 유해성 입증 최종 검증 작업 완료  |
| 2016.4.18.      | 롯데마트,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의지 표명 및 피해보상 100억 원 언급 |
| 2016.4.21.      | 옥시레킷벤키저, 파문 확산되자 공식 사과, 기존 피해자 지원기금 50억 원 추가 출연 계획 표명                        |
| 2016.4.21. ~27. |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주일간 옥시 제품 포함하여 생활용품 브랜드 할인 및 판촉행사                   |
| 2016.4.22.      | 옥시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역 커뮤니티 및 SNS 중심으로 옥시 제품 불매운동 확산                     |
|                 | 환경부, 추가 피해조사 신청접수 재개할 방침 표명  |
|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를 검찰에 고발                                 |
| 2016.4.24.      | 옥시, 검찰에 자사제품 관련성 부인하는 보고서 제출   |
| 2016.4.25.      | 롯데마트, 피해보상 전담조직 가동   |
|                 | 검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소환 조사  |
|                 | 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7개 단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개최하여 옥시 제품 불매운동 호소           |
| 2016.4.26.      |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 ‘2013년 치명적 독성 인지’ 환경부 자료 공개                                   |
|                 | 홈플러스 대표, 구체적인 피해보상 언급 없이 뒤늦은 사과  |
| 2016.4.27.      |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검토 및 청문회 통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                         |

|            |  |
|------------|--|
| 2016.4.28. | 검찰, 세퓨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및 원료 공급업자 소환 조사   |
|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조사 추가 접수 지시  |
|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3-4등급 피해자의 분석결과는 1-2등급 피해자와 유사함에도 정부가 이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구제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 진상 조사와 배상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촉구 |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 열어 옥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125개 불매대상 목록을 공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불매운동 참여 당부   |
|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통해 옥시 제품을 서울시에서 쓰지 않겠다고 밝힘.   |
| 2016.4.29. |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옥시를 ‘부도덕함의 극치’ 라고 강력히 성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옥시 등에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 제시, 더민주 등이 요구한 관련 청문회 소집에는 소극적 대응.   |
|            |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비대위 회의에서 19대 국회 내에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개최 노력 표명   |
|            | 검찰, 세퓨 제품은 전문지식 없는 회사 대표가 인터넷 보고 제조한 안전 인증 받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   |
|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열어 경증 피해와 폐 이외 피해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판정에 필요한 피해기준 마련하기로 결정.   |
| 2016.5.2.  |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회사 공식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 발표, 사건 발생 5년만에 공식 사과  |
| 2016.5.3.  | 옥시 본사, 홈페이지 통해 공식 사과문 게재   |
| 2016.5.4.  | 피해자가족 및 최예용 소장, 영국 본사 항의 방문  |
|            | 검찰, 서울대 수의대 교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
| 2016.5.5.  | 환경운동연합, 서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 개최   |
| 2016.5.6.  | 피해자가족 및 최예용 소장, 테스코 측 항의서한 전달  |
|            | 피해자 유족 방문단, 레킷벤키저 CEO 면담, 사과는 듣지 못함  |

|            |  |
|------------|--|
| 2016.5.7.  | 검찰,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구속   |
| 2016.5.8.  | 정부와 여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첫 당정협의 열어 검찰 수사 끝난 후 국회 청문회 개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            | 질병관리본부, 2011~2013년 폐손상 의심환자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 폐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
| 2016.5.9.  | 검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재출석 조사   |
|            |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1차 회의 개최, 피해자들 의견 청취   |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 등 50여 개 시민단체, 옥시제품 불매 행동 선언 및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조치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 2016.5.10. | 경기도,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옥시제품 사용 즉시 중단 발표   |
|            |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옥시 제품 불매 운동 돌입 선언                                 |
|            | 검찰,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소환 조사   |
| 2016.5.11. | 검찰,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국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 그러나 사과의 표현은 없었음.                        |
|            | 영국 옥시본사 항의방문단 귀국보고 기자회견  |
| 2016.5.12. | 피해자가족 및 최예용 소장, 세퓨 원료 공급업체인 덴마크 케톡스 사에 대해 덴마크 정부에 항의서한 전달                              |
|            |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열어 덴마크 케톡스 사가 세퓨와의 거래 사실 부인한 인터뷰 공개                                     |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
|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 문책을 공식 요구                     |
|            | 새누리당, 기자회견 열어 박근혜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입법 미비 등의 국가 실패는 정부와 국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주장. |

|            |   |
|------------|---|
| 2016.5.13. | 환경운동연합, 가피모 기자회견 열어 대형유통업체들의 옥시 제품<br>즉각 판매 중단을 촉구  |
| 2016.5.14. | 신현우 옥시 전대표 등 4명 관계자 구속  |
| 2016.5.15. | 환경부, 탈취제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균제 성분 공개를 한국<br>P&G에 요청   |
| 2016.5.16. |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35명과 가족 201명 등을 대리해 국가<br>와 22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원료물질 공급사를 상대로<br>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대 소송 제기           |
|            | 검찰,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 대표 조사   |
| 2016.5.17. | 가피모 및 시민단체들,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실험 조<br>작 및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
|            | 한국P&G, 페브리즈 전성분 공개  |
|            | LG생활건강, 과거 출시했던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 포함된 것에<br>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 발표  |
| 2016.5.18. | 서울시 교육청, 세척, 살균, 소독제품의 안전성 전반적으로 점검하<br>는 ‘위생안전관리대책’ 마련했다고 발표   |
|            | 피해자모임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23일까지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br>항의방문 및 런던 내 항의시위활동   |
|            | 서울중앙지법, 서울대 조 교수의 재심사 청구 기각   |
| 2016.5.19. | 검찰,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원 처음으로 불러 조사   |
|            | 가습기살균제 대책특위 이언주 의원, 일본의 ‘원인미상 폐손상 위<br>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 보고서’ 공개   |
| 2016.5.20. | 국회 환노위 장하나 의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년, 2000년<br>보고서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년 보고서 공개, ‘살생물제 관<br>리 기준 부재’,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시급함을 주장 |
|            | 옥시레킷벤키저 아타 사프달 대표, 서울 및 대전 등을 방문, 비공개<br>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사과 간담회 가짐   |
| 2016.5.2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사단법인 창립  |
| 2016.5.23. | 존 리 옥시 전 대표 피의자 소환  |
| 2016.5.24. | 환경부, 내년까지 시중 유통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계<br>획 발표  |
|            |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시 상담공간 제공 및 정<br>신심리상담 지원 계획 발표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 내 백화점 6곳 제외 대부분의 매장에서<br>여전히 옥시 제품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   |

|            |  |
|------------|--|
| 2016.5.25.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가피모 간담회 개최하여 국정조사와 특검 의지 밝힘       |
| 2016.5.27. | 대전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 2016.5.31. |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5년만에 첫 기소                  |
| 2016.6.2.  | 이철우 롯데마트 전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전 대표 검찰 조사               |
| 2016.6.3.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 발표, 3-4등급 피해자 제외          |
| 2016.6.5.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피모, 서울 시민청 촛불 추모제 개최                  |
| 2016.6.7.  | 가피모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 공동 기자회견                     |
| 2016.6.8.  |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발표              |
| 2016.6.11. | 검찰, 롯데마트 전 영업본부장 등 구속                            |
| 2016.6.12. | 검찰, 호서대 교수 구속                                    |
| 2016.6.13. | 전북 옥시제품불매집중행동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전북지역 살균제 피해자 70명 규모 발표 |
| 2016.6.15. | 옥시레킷벤키저 생산 공장 직원 무더기 해고 사실 보도(연합뉴스)              |
| 2016.6.19. |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 피해자 대상 비공개 사과보상 설명회 개최             |
|            |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지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보고       |
| 2016.6.27. | 여야 3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실시 합의                       |
|            |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 코 섬유화 진단서 공개               |
| 2016.7.4.  | 추가 피해신고 접수 재개 두 달 간 피해자 3698명(사망자 701명) 집계 발표    |
| 2016.7.6.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90일간 활동 예정              |
| 2016.7.10. | 검찰, 정부 책임 고려하여 수사범위 확대 및 수사결과 발표 연기              |
| 2016.7.15. | 민사법관 포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중과실 위자료 증액 의견               |
| 2016.7.25. | 국조특위 현장조사 1일차                                    |
|            | 국회 환노위 이용득 의원 2014년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노출평가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
| 2016.7.26. | 정부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영향 검토위원회에서 CMIT, MIT 유해성 인정       |

|            |   |
|------------|---|
| 2016.7.26. | 신창현, 이정미 의원, 노동부 PHMG 유독성 12년간 공표 누락 지적                     |
| 2016.7.28. | 환경보건시민센터,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온라인 판매 고발                              |
| 2016.7.31. | 옥시, 1-2급 피해자 배상안 발표   |
| 2016.8.1.  | 환경부, MIT 함유 방향제 및 탈취제 수거권고, 호흡독성 인정한 첫 정부 조치                |
| 2016.8.12. | 국조특위, 옥시측 살균제 원료 위험성 2007년부터 인지한 사실 확인                      |
| 2016.8.14. | 국조특위, 1997년 및 2003년 환경부 독성실험 생략, 유독물 아니라고 고시하여 법령 위반한 사실 확인 |
| 2016.8.15. | 국조특위, 2011년 정부부처들 간 업무 떠넘기기 행위 폭로                           |
| 2016.8.18. | 환경부, 3차 피해판정서 피해자 중 1/5만 피해 인정                              |
| 2016.8.24. | 공정거래위원회, 증거부족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법령위반 판단 보류                    |
| 2016.8.29. | 30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청문회 개최                                   |

##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2016년 2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1~3차 및 2016년 1월의 피해 신고 접수를 모두 합하여 피해자의 규모는 총 1484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2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건 초반 1차 및 2차 피해 접수를 받았을 때 신고한 피해사례의 건수는 530명(사망자 143명)에 불과했으나, 3차 신고 당시 피해사례는 752명(사망자 75명), 4차 접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월 한 달 간 접수자 202명(사망 8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3차와 4차 피해접수 건수는 2016년 2월 기준 모두 954명(사망 83명)으로 1, 2차 피해접수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이는 환경단체와 피해자 모임의 적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홍보와 일부 국회의원 및 언론, SNS 등을 통한 사례 접수에 대한 정보 확산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의 위기’ 집담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중 1차 접수와 2차 접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자 현황은 각각 168명, 53명이며 이들 221명 가운데 95명이 사망하였고(2016년 3월 기준), 사망자

중에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63명, 임산부가 18명으로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 정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 2차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1등급(관련성 확실)과 2등급(관련성 높음) 피해자 221명을 제외한 3등급(관련성 낮음)과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피해자 309명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입증되었으나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 3 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법학 분야와 환경보건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본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공 이슈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16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2014년~2016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RISS에서 ‘가습기살균제’로 검색한 결과는 총 38건에 불과했다.

먼저 법학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이현욱, 2016), 또는 민사적 쟁점에 관한 탐색(송정은·정남순, 2016), 국가배상책임(박태현, 2016) 등 피해 보상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생활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김명엽, 2016)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을 점검하거나(권정환 외, 2012), 경기 지역 주민의 가습기살균제 사용행태를 분석한 연구(전병학 외, 2011), 가습기살균제 노출 평가(강현중 외, 2012),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정남순, 2013),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연구(김용화, 2016), 또는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증상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특성을 밝히는 연구(박동욱, 2016) 등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과 실태를 조망하고 있는 연구로는 조용민(2016), 문성제(2014), 최예용 외(2012)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학과 환경보건학, 독성학 분야 등에 특화되어 있어 사건에 대해 구조적, 제

도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그 수가 적으며, 그마저도 국가책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 논의는커녕 기업의 책임 논의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조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현재 진행 과정과 방향성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재점화되고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연구는 전반적으로 사건 과정과 그 방향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담론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담론에 대해 고민하고, 추가적인 정책관련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언론 보도 프레임이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산모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내 최초의 살생물제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현저성과 심층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과 공익성에 비해 언론 보도가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 제공에 있어 언론이 제시하는 언론 보도 프레임 가운데 어떤 프레임들이 주로 작동하며, 서로 중복되는 경우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떤 양적 특성을 보이는가?

1-1. 기사의 양은 단계별로 어떠한가?

1-2. 기사의 양은 언론사별로 어떠한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언론이 공공 이슈에 대한 보도의 현저성은 이를 접하는 수용자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사건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도 빈도만이 아니라, 각 프레임 별로 어떤 속성을 선택하고 어떤 속성을 배제하였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도외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각 시기와 언론사별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행과정과 문제해결 방향에 있어 언론 보도가 관련이 있는지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책임성 논의에 대한 보도 내용을 살펴 어떤 주체에 지속적으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 언론이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문제 1]을 통해 3개 언론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에 대한 언론 보도량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전반적 현저성을 파악할 것이다. 언론사에 따른 보도량은 2016년 1월 검찰 수사 재개에 따라 세계 언론사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00년대 초 사건 초기부터 이 이슈를 조명해 온 경향신문의 경우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적으로 비슷한 양의 기사를 내보내기보다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 정부와 재계 등의 반응이 상호작용할 것이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언론 보도량은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연구 문제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떤 질적 특성을 보이는가?**

2-1. 기사의 유형은 어떠한가?

2-2. 기사에 나타나는 취재방식은 어떠한가?

2-3. 기사에 나타나는 정보원은 어떠한가?

앞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적 특성을 살펴본 후 [연구 문제 2]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의 심층성에 대해 분석하고 정보의 질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사의 유형, 정보를 수집한 취재 방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원의 유형을 분석틀로 삼았다. 언론 보도의 심층성이 보도되는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유진술, 2015). 오늘날과 같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수용자들은 과거와 달리 뉴스의 양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용자들은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 심층보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문협회, 2008). 이러한 정보의 양적 증가와 정보의 질 향상 요구는 뉴스의 공익적 측면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심층성 분석은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이 매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공익성과 정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등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적 사안으로 공익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많은 양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심층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충분히 질적인 뉴스가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써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정보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분석 대상 언론사 모두 검찰 수사 등 단기간 내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을 전하기 위한 단순보도 형식이 많이 나타날 것이나 취재 방식이나 정보원 등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언론사별, 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연구 문제 3]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 3-1. 언론 보도 프레임은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2. 언론 보도 프레임은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론 보도 프레임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켜 수용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를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Entman, 1993; 김태원, 2016 재인용).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재난적 성격의 사회적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 언론은 보도 프레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갖는 성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이연, 2010).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찾아낸 프레임 분석틀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보도 기사들이 갖는 대략적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정,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 기사 내에서 하나 이상의 프레임의 존재 여부를 중복으로 체크할 것이다. 이슈 진행단계별로, 또 언론사별로 각각의 보도 프레임이 갖는 특성과 시기별, 언론사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각 언론 보도 프레임이 갖는 특징은 언론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연관되어 반영됨으로써 언론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유의미한 프레임 빈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제 2 절 연구 방법

### 1. 연구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디어의 주요 공적 이슈로 재점화되기 시작한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3대 일간지의 보도 기사 553건을 수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일간지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국내 종합일간지 가운데 각각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 중도적 성향을 대표하는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해당 분석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한 상위 3개 주요 언론사라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기사의 보도시기를 2016년 1월부터 8월로 한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고정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프레임을 받아들인 수용자들의 인식프레임이 다시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뉴스 프레임과 인식 프레임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레이밍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고 보는 프레이밍 이론의 관점(Pan & Kosicki, 1993; 우지숙·최정민, 2015 재인용)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2011년과는 달리 2016년에 공공이슈로 재점화되어 정책이슈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의 인식 프레임 간 상호작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언론 보도시기를 이와 같이 한정, 2016년 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8월 말 청문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기사 검색 및 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종합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네이버 뉴스 검색, 그리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사실·칼럼과 같은 의견 기사

및 사진 기사를 제외하고 총 5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각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 총 233건, 조선일보 총 173건, 한국일보 총 147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 2. 연구 분석 방법

### 1) 보도 빈도와 추세 분석

내용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피는 요소 중의 하나는 빈도(frequency)이다(윤순진·이동하, 2010). 언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다양한 단서(cue)를 통해 보도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을 드러냄으로써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통해 여론 형성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McCombs, 2004). 특히 높은 현저성, 즉 언론 보도 프레임의 반복적 노출은 수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인식 프레임 형성 및 이슈 쟁점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McLeod & Detenbe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 보도의 빈도를 측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은 언론 보도 분석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빈도 및 내용분석에 있어 분석 대상 기사들의 보도시기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보도시기의 단계별 분류는 김태원(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여론 변화, 정부의 대응책, 또는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쟁점들에 따라 언론사들이 집중하는 언론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발생했던 주요 사건 및 쟁점과 그에 대한 언론 보도 빈도에 따라 이슈점화, 이슈확산, 이슈진정 단계로 나누고 이를 통해 분석 대상 언론사들이 보도한 주요 쟁점과 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의 변화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였다. 먼저 이슈점화 단계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사건 관련 기업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족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여 보도 빈도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이슈확산 단계는 2016년 5월과 6월 두 달 간 언론 보도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

한 여러 정보가 알려지는 동시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국한되어 있던 이슈가 여론과 정책결정자들에게로 확산되면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슈진정 단계는 2016년 7월 및 8월로, 이 시기에는 국회에서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8월 말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논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기업 및 정부의 문제점 폭로, 도덕성과 책임성 논의에서 나아가 문제해결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국가의 관리 및 감독 체계와 소비자 피해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슈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논의하면서, 언론 보도의 빈도와 여론의 관심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슈 진행 과정에 따른 단계의 구분을 통해 언론 보도의 빈도와 추세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 프레임의 변화 또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도한 3개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기사의 수를 각 이슈 진행단계 및 언론 사별로 얼마나 나타났으며 그 추세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언론 보도 심층성 분석

심층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의 유형, 취재 방식, 정보원, 이 세 가지 요소를 분석틀로 하였다. 기사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맥락을 파악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한 개의 기사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기사의 제목, 그리고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보통 첫 두 문단)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정보를 주로 전달하는 핵심 정보원이 누구인지, 마지막 줄에서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전해졌다” 등의 간접 취재 방식이 드러나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선택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과 함께 심층성 요소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자 외에 코더 2명을 섭외하여 심층성 기준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심층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2>와 같다.

### (1) 기사의 유형

기사의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심층성 요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각각의 기사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Barnhurst와 Mutz의 기준(1997)을 중심으로 기사의 유형을 단순보도와 분석적 보도로 분류하였다. Barnhurst와 Mutz는 기사의 심층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자체를 기술하는 이벤트 중심 보도(event-centered coverage)와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과정 및 결과와 영향 등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여 기술하는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를 기본적인 심층성 분석틀로 삼고 있다(Barnhurst & Mutz, 1997; 박재영, 2014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유형을 단순보도와 분석적 보도로 분류하였다. 단순보도는 단신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등 어떤 견해나 해석이 덧붙이지 않고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분석적 보도의 경우 그 외의 박스, 기획, 심층탐사 기사 등 해당 사건의 배경, 인과관계, 과정 및 결과, 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분석적 견해가 주를 이루며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등 해석적, 판단적 성격의 기사를 의미한다.

### (2) 취재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서 취재 방식은 보도 심층성을 파악하는 한 요소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기사에서 밝힘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취재 방식이 불분명하여 드러나지 않는 경우, 특히 특정 표현(“밝혔다고 전해졌다” 등 간접적 표현) 사용, 타 언론(연합뉴스 등 통신사)의 보도, 서면 또는 보도자료 등을 인용한 경우 등 직접 취재방식이라고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우 ①간접 취재로 기사에서 직접 현장 취재를 하였다는 의미의 표현(“단상에 뛰어올라가다” 등의 행동이나 현장 묘사)이나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기자회견 현장, 단독 보도 등 현장에서 정보를 직접 입수한 것이 명확한 경우 ② 직접 취재로 분류하였다.

### (3) 정보원

정보원은 언론 보도 심층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며 뉴스의 생산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로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공

적 권위를 가진, 또는 분명한 인적 정보를 가진 신뢰성 있는 정보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질적 뉴스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이재경, 2005; 박재영, 2006; 한국언론재단, 2007). 미국의 민간 언론연구기관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연간 보고서 <뉴스미디어 현황: 미국 언론 연례 보고서>에서 보도 심층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투명 정보원(transparent source)’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 정보원이란 ‘기사와의 관련성이 명백하며 그가 누구인지 독자가 알 수 있는’ 정보원을 의미한다(PEJ, 2008; 박재영, 2006). 한편 이러한 정보원의 투명성을 언론 보도 심층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분류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보원을 실명, 단순 익명, 소속 익명, 단체, 불특정다수, 공적 자료, 사적 자료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투명, 반투명, 불투명으로 재분류하여 투명성 정도와 속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이건호, 2008). 본 연구에서는 PEJ의 보고서와 이건호(2008)의 분류 기준을 참고, 변형하여 기사 내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소속과 성명, 자료명과 기관명이 모두 표기된 ① 실명/단체 정보원, 소속이나 단체명은 드러나 있으나 ‘관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② 소속 익명 정보원, 그리고 그 외의 소속 및 성명, 자료명 등이 모두 불분명하게 표기된 경우인 ③ 불특정다수/단순 익명 정보원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이 때 한 기사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이 드러날 경우 기자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취재 행위를 한 대상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특히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 및 제목에 대한 내용의 출처를 위주로 정보원을 구분하였다.

〈표 2〉 언론 보도 심층성 요인의 조작적 정의

| 요인        | 조작적 정의        |  |
|-----------|---------------|--|
| 1. 기사의 유형 | ① 단순 보도       | -단신, 스트레이트 기사<br>-어떤 견해나 해석이 덧붙이지 않는 경우  |
|           | ② 분석적 보도      | -박스, 기획, 심층탐사 기사<br>-해석적, 판단적 표현의 사용<br>-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또는 관계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사안에 대한 견해를 비추는 경우<br>-기자의 견해나 해석을 덧붙이는 문장이 주를 이루는 경우 |
| 2. 취재 방식  | ① 간접 취재       | -보도자료, 서면브리핑<br>-출처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br>-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br>-성명서 발표 (장소가 마련되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은 경우는 제외)<br>-온라인, SNS 인용                |
|           | ② 직접 취재       | -기자회견 등 현장 취재, 단독 기획 보도, 전화/대면 인터뷰 등<br>-자료 정보의 출처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
| 3. 정보원    | ① 실명/단체       | -소속과 성명이 모두 표기된 경우<br>-정부기구나 사업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집합적 정보원의 조직명이 명확하게 반영된 경우  |
|           | ② 소속 익명       | -소속은 밝혀졌으나 정보원의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br>-정부기구나 사업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집합적 정보원의 조직명이 명확하나 ‘관계자’ 등 정보원의 성명은 드러나지 않은 채 조직을 대표하는 경우            |
|           | ③ 불특정다수/단순 익명 | -소속과 정보원 성명 모두 표기되지 않는 경우<br>-소속 조직명과 정보원 성명 모두 명확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된 경우<br>-정보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정보가 전달된 경우 (“~라고 전해졌다”)      |

### 3) 언론 보도의 프레임 분석

#### (1) 프레임 설정 및 조작적 정의

기사의 분석을 위해 기사의 내용에 관한 보도프레임을 선행연구와 수집한 기사를 참조하여 도출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언론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틀을 가지고 보도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보도가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론 프레임은 수용자들의 인식 프레임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며 상호작용한다(Van Dijk, 1988; Pan & Kosicki, 1993; 우지숙, 최정민, 2015 재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위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적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해당 이슈를 어떤 의미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인식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 유목은 Semetko와 Valkenburg의 연구(2000)에서 제시된 연역적 프레임 분류를 적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연역적 방식의 프레임은 기존의 정형화된 프레임 틀이나 연구자들이 만들어 표준화된 프레임 지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어 온 만큼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달리 귀납적 방식의 프레임은 개별 이슈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추출된 것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프레임을 대상으로 한다. Semetko와 Valkenburg는 1997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 개최 기간 동안 2601개의 신문기사와 1522개의 TV 뉴스 보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책임성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총 5개의 프레임에 따른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Semetko & Valkenburg,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온 연역적 프레임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갖는 특성을 귀납적으로 반영하여 총 7개의 프레임을 선정한 후 이에 따라 분석을 위해 수집한 3개 언론사의 기사들을 내용 분석하였다.

#### ① 갈등 프레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 주체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사과 행동을 둘러싼 피

해자와 기업의 갈등, 정부의 지원 가능 피해자 범위 선정에 관한 피해자와 정부의 갈등,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 등에 관한 기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②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이는 개인 인물을 조명하여 감정적 측면을 묘사하거나 정서적 측면을 환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어린이 피해자의 사연이나 피해자 가정의 사연을 소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연을 읽던 검사 눈물을 흘렸거나 사망한 가족을 위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은 행동에 대한 유가족들의 죄책감이나 슬픔을 상세하게 소개한 일화적 스토리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 ③ 도덕성 프레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행위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행동 규범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사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해 기업이나 로펌, 연구진들의 증거 은폐 및 왜곡, 실험결과 조작, 소비자 민원 목살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④ 책임 프레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이후 밝혀지는 정책적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 주체를 지목하고 대처를 촉구하는 경우, 또는 책임 주체를 밝히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관련 정부부처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관련법 개정안 계류 등 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책임 소재에 관한 기사들이 이에 포함된다.

#### ⑤ 보상 프레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업의 보상 논의와 관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는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규모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금전적 또는 심리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사도 포함될 수 있다.

#### ⑥ 위험 프레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피해자 발생 규모, 관련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 추가 피해자 접수 기간 동안 증가한 피해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경향성을 통해 이슈가 갖는 심각성과 위험 상황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 ⑦ 문제해결 프레임

문제해결 프레임은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해결 방안이 논의되거나 드러난 경우, 또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다룬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을 위한 청문회,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업 불매 운동,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천연제품 사용 노력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비도덕적인 기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기사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표 3〉 언론 보도 프레임 분류와 조작적 정의

| 분류         | 정의  |
|------------|---|
| 갈등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주체들 간 대립적, 갈등적 요소의 강조</li> <li>· 피해자와 기업 간 갈등, 피해자와 정부 간 갈등, 국회와 정부 간 갈등, 여당과 야당 간 의견 대립과 갈등</li> </ul>  |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인물을 조명, 감정적 측면을 묘사</li> <li>· 정서적 측면을 환기</li> </ul>   |
| 도덕성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li> <li>· 기업이나 연구진, 로펌 등의 증거 은폐, 왜곡, 실험결과 조작, 소비자 민원 묵살, 허위 광고 지속적 보도 등</li> </ul>  |
| 책임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재점화 이후 밝혀지는 정책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 주체를 지목하고 대처 촉구</li> <li>· 관련 정부부처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관련법 개정안 계류 등 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책임 소재</li> </ul>   |
| 보상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업의 보상논의 관련</li> <li>· 피해의 규모나 사회 내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금전적/심리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li> </ul>   |
| 위험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피해자 발생 규모, 관련 화학물질의 시중 유통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 또는 구체적 수치, 경향성</li> <li>· 이슈가 갖는 심각성, 위험상황의 수준을 중점 보도</li> </ul>   |
| 문제해결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해결 방안 논의 혹은 결정</li> <li>·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 규명, 처벌 논의, 청문회 및 특별법 제정</li> <li>· 시민사회의 자발적 불매운동,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인식 및 소비성향의 변화,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안</li> <li>· 비도덕적 기업 규제 위한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등</li> </ul> |

## (2) 분석방식: 프레임의 중복 코딩

해당 기사 내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의에 부합하는 프레임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을 중복체크하도록 하였다. 프레임의 기준은 기사의 제목과 그에 일치하는 주된 내용을 위주로 하였다. 이렇게 중복체크한 프레임의 수를 기준으로 SPSS 교차분석을 통해 단계별, 언론사별로 경향성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사의 수에 비해 프레임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프레임만 선택해야 하는 단일코딩에 비해 기사 내에 반영된 프레임을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4) 코더 간 신뢰도 검증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기사를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를 발견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프레임을 지지하기도 하는 등 주관성 개입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용 분석에 있어 모든 분석 단위의 동등한 처리와 객관적인 과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Krippendorff, 1989).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료의 내용 분석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나, 우선 프레임 분석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 <표 4>와 같이 분석대상 기사 전체의 10%인 55개의 기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코더 2명과 함께 코더 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명의 대학원생을 코딩에 참여시켜 유무를 설명한 뒤 각 언론사의 기사를 시기별로 10%씩 랜덤으로 선정, 무작위로 추출해 코더에게 프레임 분석 방법을 훈련시킨 후 각 언론사별 전체 기사를 심층성 요소 항목과 프레임 유무에 따라 분석, 코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코딩 시 불일치를 보이는 개념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보다 조작적 정의를 정교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코딩 작업이 필요한 심층성 항목과 프레임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코더 간 항목 일치 여부는 크리펜도프 알파(Krippendorff's Alpha)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5>의 결과와 같이 3개의 심층성 항목과 7개 프레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코더 간 신뢰도가 8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3개 신문사 모집단과 10% 표본집단 기사의 수

| 신문사  | 모집단(N) | 10%  | 표본집단(n) |
|------|--------|------|---------|
| 경향신문 | 233    | 23.3 | 23      |
| 조선일보 | 173    | 17.3 | 17      |
| 한국일보 | 147    | 14.7 | 15      |
| 합계   | 553    | 55.3 | 55      |

〈표 5〉 Krippendorff's Alpha 측정에 따른 항목별 코더 간 신뢰도

|        | 항목         | 코더 간 신뢰도 |
|--------|------------|----------|
| 심층성 항목 | 기사 유형      | 0.873    |
|        | 취재 방식      | 0.821    |
|        | 정보원        | 0.803    |
| 프레임 항목 | 갈등 프레임     | 0.873    |
|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0.846    |
|        | 도덕성 프레임    | 0.927    |
|        | 책임 프레임     | 0.85     |
|        | 보상 프레임     | 0.838    |
|        | 위험 프레임     | 0.73     |
|        | 문제해결 프레임   | 0.9      |

## 제 4 장 분석 결과

### 제 1 절 언론 보도 빈도와 추세 분석

먼저 [연구 문제 1]에서 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3개 일간지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 기간, 즉 이슈가 재점화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청문회가 완료된 시점인 2016년 8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기사 보도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사들의 언론사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이 되는 총 553건의 기사 중에서 경향신문은 233건으로 전체 기사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조선일보는 173건으로 전체 기사의 31.3%, 한국일보는 147건으로 전체 기사의 2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경향신문이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슈 진행 흐름에 따른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추세를 분석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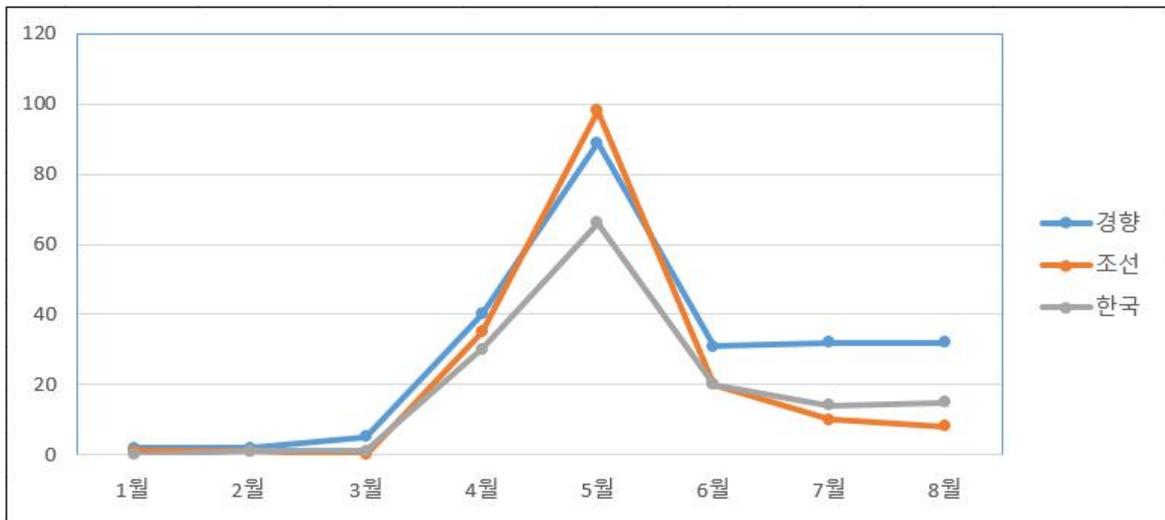
<표 6> 3개 언론사의 언론 보도 추세 (단위: 건)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합계  |
|----|----|----|----|-----|-----|----|----|----|-----|
| 경향 | 2  | 2  | 5  | 40  | 89  | 31 | 32 | 32 | 233 |
| 조선 | 1  | 1  | 0  | 35  | 98  | 20 | 10 | 8  | 173 |
| 한국 | 0  | 1  | 1  | 30  | 66  | 20 | 14 | 15 | 147 |
| 합계 | 3  | 4  | 6  | 105 | 253 | 71 | 56 | 55 | 553 |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모두 1월부터 3월에는 사건에 대해 미미하게 보도하다 4월부터 각각 40건, 35건, 30건으로 급증하여 5월에는 4월 보도량의 2배 이상의 기사를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월에 접어들면서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의 수는 다시 3분의 1 수준 이하로 급감하여 7월과 8월의 경우 경향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언론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3개 언론사의 언론 보도 추세 (그래프)

(단위: 건)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도 시기의 특성이 언론사 고유의 특성보다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된 것은 2016년 1월이지만 언론 보도량이 증가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4월 이후이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이슈들, 즉 기업인의 소환 및 구속과 같은 단순한 스트레이트성 기사 소재가 3월 이후 폭증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특히 5월에는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수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진척을 보이면서 밝혀지는 관련 이슈들에 대해 언론이 기획 기사나 심층탐사 등 분석적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인의 소환과 함께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사연과,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활동을 언론에서 주목하면서 기

사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6월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문회 및 특별법 논의가 두드러지면서 그에 대한 기사량이 증가하였으나, 5월에 이미 밝혀진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점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으로는 5월에 비해 기사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처럼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언론사들이 시기별 특성을 갖지만 유사한 흐름으로 상당량의 기사를 내보냈다는 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월별 추세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사건 진행 흐름에 따라 설정한 각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보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사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보도추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이 되는 553건의 기사 중 58.6%에 달하는 324건의 기사가 이슈확산 단계에서 보도되었으며, 이슈점화 단계에서 118건(21.3%), 이슈진정 단계에서 111건(20%)으로 비슷한 비중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표 7〉 3개 언론사의 이슈 진행단계 보도 빈도

(단위: 건, %)

|     |      | 이슈 진행단계       |               |               | 합계             |
|-----|------|---------------|---------------|---------------|----------------|
|     |      | 이슈점화          | 이슈확산          | 이슈진정          |                |
| 언론사 | 경향신문 | 49<br>(21.0)  | 120<br>(51.5) | 64<br>(27.5)  | 233<br>(100.0) |
|     | 조선일보 | 37<br>(21.4)  | 118<br>(68.2) | 18<br>(10.4)  | 173<br>(100.0) |
|     | 한국일보 | 32<br>(21.8)  | 86<br>(58.5)  | 29<br>(19.7)  | 147<br>(100.0) |
| 합계  |      | 118<br>(21.3) | 324<br>(58.6) | 111<br>(20.0) | 553<br>(100.0) |

$$\chi^2=19.166, df=4, p=0.001$$

언론사별 이슈 진행단계 보도 빈도는 위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세 언론사가 모두 이슈확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내보냈으며, 그 비중은 각각 언론사 내에서 51.5%, 68.2%,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다른 두 언론

사와 달리 이슈진정 단계에서도 27.5%(64건)에 달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이슈 진행단계에서 조선일보의 경우 10.4%, 한국일보의 경우 19.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모든 단계에서 경향신문이 가장 높은 보도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도된 기사의 양에서 경향신문이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두 언론사가 이슈점화 단계와 이슈진정 단계에서 각각 20퍼센트 대의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이슈진정 단계에서의 보도량이 불과 18건으로 이슈점화 단계의 기사 37건에 비해 절반 수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 예로 조선일보의 경우 “가습기청문회, 샤프달 옥시대표...무척 죄송하게 생각” (8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8월 29일, 30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압축하여 담아내었으나, 경향신문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청문회에 대한 기사 10여편을 보도한 것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언론사의 단계별 차이는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언론 보도 심층성 분석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시기적으로 사안이 갖는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따라 분석 기간 동안 양적으로 많은 기사를 내보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언론은 독자(수용자)들에게 충분히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 문제 2]에서 제기하는 언론보도의 심층성과 연결된다.

언론보도의 심층성은 정보의 질 또는 정보의 깊이(depth of reporting)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해 독자들에게 기본적인 사실과 배경을 알려주면서, 사건의 배경, 경위 등을 포함한 모든 국면을 제시하고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 나아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 심층성은 보도되는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기존의 언론보도 심층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심층성 요소는 오늘날의 다매체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폭발적으로 뉴스의 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익적 측면에서 정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수용자들이 더욱 질적인 뉴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언론 보도의 심층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현재까지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여전히 진행 중인 국가적 사안으로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위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보았듯 우리 사회의 주요 언론사들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양적으로 많은 기사를 내고 있다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언론은 수용자들에게 질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전달되는 정보의 질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층성을 파악하는 여러 항목 중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보원(취재원)의 성격, 기사의 유형, 기사의 관점 등을 주된 심층성 요소 파악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인물과 자료 정보원을 모두 통틀어 소속과 성명 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 1) 실명/단체, 소속은 분명하나 ‘관계자’ 등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2) 소속 익명, 성명이나 제목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 3) 불특정다수/단순 익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사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실관계만을 전달하며 어떤 해석도 보이지 않는 단신,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1) 단순 보도로, 정보원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자가 본인의 해석을 전달하는 박스, 기획, 심층탐사 등의 기사의 경우 2) 분석적 보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습득의 경로가 간접적이었는지 직접적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심도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아 취재방식을 추가하였다. 서면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SNS에 올라온 글과 같은 경우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정보이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 간접 취재로 분류되었다. 반면 기자회견, 인터뷰(대면, 전화), 단독보도 등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를 입수한 경로이므로 2) 직접 취재로 분류하였다. 정보 입수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 기사 내 표현을 살펴보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3개 언론사(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심층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 기사의 심층성 요소 빈도 분석 결과

언론은 ‘체계화된 취재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실을 전달하는 각종 보도 기법에 의해’ 깊이 있는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Altschull, 1984; Schudson, 1995; 유진술, 2015 재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분석대상 기사들을 살펴보면 ‘취재 방식’ 과 ‘정보원’ 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언론사의 취재 방법을 통해 언론 보도의 심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보도한 3개 언론사의 기사 전체의 심층성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분석대상 기사 전체에서 단순보도, 직접 취재, 실명/단체 정보원이 분석적 보도, 직접 취재, 소속 익명 및 단순 익명 정보원에 비해 그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체 기사의 심층성 요소 세부 항목별 빈도

| 심층성 요소 |          | 건수(건) | 비율(%) |
|--------|----------|-------|-------|
| 기사유형   | 단순보도     | 350   | 63.3  |
|        | 분석적 보도   | 203   | 36.7  |
| 취재방식   | 간접취재     | 178   | 32.2  |
|        | 직접취재     | 375   | 67.8  |
| 정보원    | 실명/단체    | 426   | 77.0  |
|        | 소속익명     | 89    | 16.1  |
|        | 불특정다수/익명 | 20    | 3.6   |
|        | 모름       | 18    | 3.3   |

먼저 기사의 유형에서 분석대상 전체 기사의 63.3%를 차지하는 350건의 기사는 ‘단순보도(단신, 스트레이트 기사)’ 로 분류되었다. 이는 일견 분석대상 언론사가 단순보도 유형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어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사 전체에서 분석적 보도 또한 단순보도의 절반 이상(203건, 36.7%)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기사 전반에서 단순보도 기사가 이어진 후 분석적 보도 기사를

후속으로 내보내는 경향성이 분석대상 언론사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어느 정도 모인 후 진행 상황에서 수집한 질적 정보를 토대로 하는 분석적 보도(기획기사, 심층탐사 기사)가 후속기사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순보도가 대부분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질적 정보의 전달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로 언론사의 취재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 기사 553건 가운데 375건이 ‘직접 취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 현장 취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검찰이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경우, 이해주체들이 각각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므로 직접 정보원을 취재하여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 과정이나 결과 등을 심층 분석하는 ‘분석적 보도’의 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거나 대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취재’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데 있다. 경향신문의 “옥시 사태로 본 산학협력, 이대로 괜찮을까?”(5월 21일자 기사)의 경우 전공생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대로 연구진이 결과를 조작한 비윤리적 사안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기사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실명/단체’ 정보원이 426건(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속익명’ 정보원이 89건(16.1%),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이 20건(3.6%), 정보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18건(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로 보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언론사들이 대부분 소속과 실명이 분명한 정보원을 인용하거나 적어도 소속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언론사별 심층성 요소 빈도 분석 결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심층성 요소가 갖는 특성이 각 언론사에 따라서는 달리 등장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언론사별로 심층성 요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기사의 유형

언론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심층성 요소인 기사의 유형은 사건에 대한 과정과 결과의 핵심을 짚고 간결하게 전달하여 정보 전달에 집중하는 단순보도 유형의 기사와,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기초적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추적과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견해를 함께 전달하는 분석적 보도 유형의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해 언론사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기사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래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9> 언론사별 기사의 유형 분포

(단위: 건, %)

|     |      | 기사유형          |               | 합계             |
|-----|------|---------------|---------------|----------------|
|     |      | 단순보도          | 분석적 보도        |                |
| 언론사 | 경향신문 | 130<br>(55.8) | 103<br>(44.2) | 233<br>(100.0) |
|     | 조선일보 | 138<br>(79.8) | 35<br>(20.2)  | 173<br>(100.0) |
|     | 한국일보 | 82<br>(55.8)  | 65<br>(44.2)  | 147<br>(100.0) |
| 합계  |      | 350<br>(63.3) | 203<br>(36.7) | 553<br>(100.0) |

$$\chi^2 = 29.421, df = 2, p=0.000$$

먼저 전체 기사 553개 중 ‘단순보도’ 유형은 350건으로 63.3%를 차지하며, ‘분석적 보도’ 유형이 203건(36.7%)으로 ‘단순보도’ 유형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로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향신문의 경우 분석적 보도 기사는 103건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보도’ 기사는 총 233건의 절반(130건, 55.8%)이었다. 한국일보 역시 ‘분석적 보도’ 기사가 65건(44.2%)이며 ‘단순보도’ 기사는 82건(55.8%)으로 경향신문의 경우와 비중이 같았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분석적 보도’ 기사는 35건(20.2%)에 불과하여 다른 두 언론사의 ‘분석적 보도’ 기사의 비중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론사들에 따라 기사의 유형이 보이는 차이는  $p=0$ 으로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의 유형에서 언론사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사들 모두 ‘단순보도’ 유형의 짧고 간결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스트레이트, 단신 기사들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두 언론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배경과 원인까지도 심층적으로 분석, 탐사하는 ‘분석적 보도’ 유형의 기사들이 ‘단순보도’ 유형 기사의 80% 수준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단순히 과정과 결과만을 맥락 없이 과편화시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경우 ‘단순 보도’ 유형의 기사들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사건의 맥락을 파헤치는 ‘분석적 보도’ 유형의 기사가 후속 보도로 이어짐으로써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점화된 이후 언론은 사건에 대해 다양한 깊이를 갖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7월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 화학물질에 의한 폐손상에 관한 단순 보도(7월 26일자 “CMIT, MIT 폐섬유화 유발, 정부 검토위 유해성 첫 인정” 등)를 이어가다가 폐와 폐 이외 기관의 손상에 대한 분석 기사를 후속으로 내보내었다(7월 26일자 “CMIT 푼 물에 넣은 열대어 뇌에 염증...독성 피해 확인”, “매일 썼다, 아이가 1급 뇌병변에 걸렸다”).

## 2) 취재 방식

취재 방식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 세 언론사가 모두 직접취재 방식을 간접취재 방식에 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총 553개의 기사에 대한 취재 방식의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취재’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기사가 375건(67.8%)으로 ‘간접취재’ 방식의 기사 178건(32.2%)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한편 언론사별로 취재 방식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향신문은 총 233건 중 ‘간접취재’ 방식의 기사가 63건(27%), ‘직접취재’ 방식의 기사가 170건(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총 173건 중 ‘간접취재’ 방식의 기사가 62건(35.8%), ‘직접취재’ 방식이 111건(64.2%)이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총 147건 중 ‘간접취재’ 방식의 기사는 53건(36.1%), ‘직접취재’ 방식의 기사는 94건(63.9%)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언론사별 취재 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0% 이하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표 10〉 언론사별 취재 방식 분포

(단위: 건, %)

|     |      | 취재 방식         |               | 합계             |
|-----|------|---------------|---------------|----------------|
|     |      | 직접취재          | 간접취재          |                |
| 언론사 | 경향신문 | 170<br>(73.0) | 63<br>(27.0)  | 233<br>(100.0) |
|     | 조선일보 | 111<br>(64.2) | 62<br>(35.8)  | 173<br>(100.0) |
|     | 한국일보 | 94<br>(64.0)  | 53<br>(36.0)  | 147<br>(100.0) |
| 합계  |      | 375<br>(67.8) | 178<br>(32.2) | 553<br>(100.0) |

$$\chi^2 = 4.893, df=2, p=0.087$$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세 언론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현장 취재, 관계자 또는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수차례 가짐으로써 언론사들은 이러한 직접취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향신문은 서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타 언론의 인용과 같은 간접취재 방식에 비해 기자회견, 대면 인터뷰, 현장 취재 등 직접취재 방식을 3배 이상 많이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했음을 보였다. 또한 취재 방식의 형태 내에서

도 경향신문의 비중은 간접취재와 직접취재 모두 나머지 두 언론사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두 언론사에 비해 기사 수가 약 1.5배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정보원

그렇다면 신뢰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 있어 각 기사에서 보이는 정보원 요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 기사 내에 ‘실명/단체’, ‘소속 익명’,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이 한데 섞여 나타나는 경우 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의식에 인용된 정보원을 우선적으로 코딩하였다. 아래의 <표 11>을 통해 살펴보면 세 개 언론사가 모두 ‘실명/단체’ 정보원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표 11> 언론사별 정보원 분포

(단위: 건, %)

|     |      | 정보원         |               |              |             | 합계             |
|-----|------|-------------|---------------|--------------|-------------|----------------|
|     |      | 모름          | 실명/단체         | 소속익명         | 불특정다수/익명    |                |
| 언론사 | 경향신문 | 9<br>(3.9)  | 188<br>(80.7) | 31<br>(13.3) | 5<br>(2.1)  | 233<br>(100.0) |
|     | 조선일보 | 6<br>(3.5)  | 125<br>(72.3) | 32<br>(18.5) | 10<br>(5.8) | 173<br>(100.0) |
|     | 한국일보 | 3<br>(2.0)  | 113<br>(76.9) | 26<br>(17.7) | 5<br>(3.4)  | 147<br>(100.0) |
| 합계  |      | 18<br>(3.3) | 426<br>(77.0) | 89<br>(16.1) | 20<br>(3.6) | 553<br>(100.0) |

$$\chi^2 = 7.502 \text{ df}=6, p=0.277$$

먼저 전체적으로는 소속과 이름이 분명한 실명 또는 단체를 밝히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실명/단체’ 정보원이 주로 나타나는 기사의 비중이 426건(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전달자는 분명 개인이지만 소속명만 밝힐 뿐 직위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 정보원 또는 제목이 분명치 않으나 출간을 주도한 정부 부처나 단체명이 분명한 자료 정보원을 의미하는 ‘소속 익명’ 정보원이 드러난 기사의 수는

89건(16.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불특정다수 또는 직장인이나 주부라고만 명시된 경우와 같은 익명 정보원이 20건(3.6%),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기사가 18건(3.3%) 있었다. 두 요소의 비중은 전체 기사 가운데 1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각 언론사의 정보원 분포 결과는 어떠한가? 위 <표 11>을 살펴보면, 세 언론사가 모두 실명/단체 정보원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향신문은 실명/단체 정보원의 기사 내 비중이 80.7%를 차지하며 나머지 두 언론사 역시 70% 이상 실명/단체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경향신문의 보도 가운데 실명/단체 정보원은 188건으로 80.7%를 차지하며, ‘검찰 관계자’와 같이 소속은 밝혀지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정보원인 소속익명 정보원이 31건(13.3%), 소속이나 이름 등이 밝혀지지 않은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이 5건(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인물이나 자료 등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9건(3.9%)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실명/단체 정보원이 125건의 기사에서 나타나면서 조선일보 기사 내 72.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속익명 정보원이 18.5%,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이 10건(5.5%), 어떤 단서나 출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기사가 6건(3.3%)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에서도 실명/단체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113건으로 76.9%를 차지하였으며, 소속익명 정보원이 26건(17.7%),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이 5건(3.4%), 단서나 출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3건(2%)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전문적인 의학, 화학, 법 분야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 소속과 성명이 정확히 드러나는 ‘실명/단체’ 정보원이 두드러졌으며 피해자들이나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기사 내에서 정보원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세 언론사에서 모두 ‘실명/단체’ 정보원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환경부 관계자’와 같이 소속만을 드러낸 ‘소속익명’ 정보원의 경우와 아예 소속이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채 인용된 ‘불특정다수/익명’ 정보원의 경우 조선일보가 각각 32건, 10건으로 나머지 두 언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하였으며 세 언론사 가운데서도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 18.5%, 5.8%). 이러한 정보원 요소로만 본다면 조선일보는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정보원에 대한 투명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언론사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

퇴감과 기사 내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전달에 있어 수용자들이 근거가 빈약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원의 언론사별 특성은 통계적으로 약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제 3 절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루는 언론사의 정보의 깊이, 즉 심층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언론은 수집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 Semetko와 Valkenburg(2000)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역적 프레임과, 해당 사건을 다루는 개별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프레임을 추가하여 총 일곱 개의 프레임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3개 언론사의 총 553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개의 기사에서 1개 이상의 프레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총 762개의 프레임이 해당 기간 내 3개 일간지 기사에서 나타났다. 상세한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가 완료된 8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의 진행 흐름을 이슈 진행 3단계로 구분하여 언론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고 다음 <표 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2〉 이슈 진행단계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포

(단위: 건, %)

| 구분             |          | 프레임 유형       |             |               |             |               |              | 합계            |                |
|----------------|----------|--------------|-------------|---------------|-------------|---------------|--------------|---------------|----------------|
|                |          | 갈등           | 인간적<br>흥미   | 도덕성           | 보상          | 국가<br>책임      | 위협           |               | 문제<br>해결       |
| 이슈<br>진행<br>단계 | 이슈<br>점화 | 14<br>(9.3)  | 9<br>(6.0)  | 62<br>(41.1)  | 15<br>(9.9) | 17<br>(11.3)  | 8<br>(5.3)   | 26<br>(17.2)  | 151<br>(100.0) |
|                | 이슈<br>확산 | 62<br>(13.9) | 40<br>(8.9) | 136<br>(30.4) | 29<br>(6.5) | 67<br>(15.0)  | 29<br>(6.5)  | 84<br>(18.8)  | 447<br>(100.0) |
|                | 이슈<br>진정 | 10<br>(6.1)  | 8<br>(4.9)  | 41<br>(25.0)  | 9<br>(5.5)  | 37<br>(22.6)  | 25<br>(15.2) | 34<br>(20.7)  | 164<br>(100.0) |
| 합계             |          | 86<br>(11.3) | 57<br>(7.5) | 239<br>(31.4) | 53<br>(7.0) | 121<br>(15.9) | 62<br>(8.1)  | 144<br>(18.9) | 762<br>(100.0) |

$\chi^2 = 40.237, df=12, p=0.000$

이슈 진행단계별로 3개 일간지 기사의 보도 프레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슈 진행단계 전반에 걸쳐 강세를 보이는 보도 프레임은 ‘도덕성 프레임’으로 각 단계별로 62건(41.1%), 136건(30.4%), 41건(25%)을 차지하였다.

위 <표 12>를 통해 각 단계별로 나타난 보도 프레임을 살펴보면, 먼저 이슈점화(1~4월)단계에서는 도덕성 프레임의 뒤를 이어 문제해결 프레임(26건, 17.2%), 국가책임 프레임(17건, 11.3%), 보상 프레임(15건, 9.9%), 갈등 프레임(14건, 9.3%), 인간적 흥미 프레임(9건, 6%), 위협 프레임(8건, 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슈확산(5~6월) 단계에서는 도덕성 프레임의 뒤를 이어 문제해결 프레임(84건, 18.8%), 국가책임 프레임(67건, 15%), 갈등 프레임(62건, 13.9%), 인간적 흥미 프레임(40건, 8.9%), 보상 프레임과 위협 프레임(각 29건, 6.5%) 순으로 이슈점화 단계와 달리 갈등 프레임이 보상 프레임보다 앞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슈진정(7~8월) 단계에서는 도덕성 프레임 다음으로 국가책임 프레임(37건, 22.6%), 문제해결 프레임(34건, 20.7%), 위협 프레임(25건, 15.2%), 갈등 프레임(10건, 6.1%), 보상 프레임(9건, 5.5%), 인간적 흥미 프레임(8건, 4.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은 각 시기를 불문하고 사건의 1차 책임 주체인 기업이 보여주는 도덕적 측면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슈 진행단계 전반에 걸쳐 도덕성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언론에서 이슈점화 단계의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사건 발생 당시 기업이 보여준 비도덕적 측면(민원 목살, 안전성 검사 생략, 이에 관한 보고서 결과 조작 등)과 사건에 대한 해결 과정 중 기업이 보여주는 비도덕적 측면(불리한 결과 은폐, 인과관계 왜곡하는 실험 의뢰, 검찰 수사 및 청문회 참석에 불응, 불성실한 보여주기 식 사과 행위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이슈 확산 단계의 경우 앞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적발과 폭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더불어 기업의 사과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행동을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슈진정 단계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 불성실한 응답과 청문회 불참 등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보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덕성 프레임이 각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41.1%-30.4%-25%)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프레임도 있다. 문제해결 프레임의 경우 17.2%에서 18.8%, 그 다음에는 20.7%로 각 이슈 진행단계별 보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책임 프레임의 경우 11.3%, 15%, 22.6%로 역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험 프레임 또한 5.3%, 6.5%, 15.2%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이슈가 재점화되던 초기에는 문제 발생의 1차 원인이자 책임주체인 기업의 행동에 주목하던 언론이 이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한편으로 기업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동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한 국가의 위험물질 관리체계 및 직무 유기 등 국가의 책임, 그리고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춰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슈진정 단계에서 언론은 국가 수준의 책임을 더욱 깊이 조명하였다. 경향신문의 경우 7월말부터 8월말까지 17개의 기사에서 정부의 능력 대응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법체계 관리 소홀 및 여당과 정부의 관련법 개정 반대 등에 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슈점화, 이슈확산 단계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과 함께 문제해결 프레임이 등장하여 기업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해결방식을 보여주던 것과 달리, 이슈진정 단계에서는 문제의 2차 책임에 주목하고 사건 이면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고 유통한 기업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허위광고를 하여도 거의 제재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피해자들이 기업과 대립하던 5년 간 기업이 이를 묵살할 수 있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과 은폐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사전 예방 체계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추가 피해 접수를 하면서 피해자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감시받지 않은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진단과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적이 주목받는 등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위험 프레임을 통해 점차 비중을 늘려가며 나타났다.

이러한 프레임의 단계별 차이는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앞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른 프레임 변화를 통해 언론과 사회가 이슈의 흐름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안을 지켜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항목에서는 언론사에 따라 언론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자들 개인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준웅, 2005).

〈표 13〉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 분포

(단위: 건, %)

| 구분      | 프레임 유형       |              |               |              |               |              |               | 합계             |                |
|---------|--------------|--------------|---------------|--------------|---------------|--------------|---------------|----------------|----------------|
|         | 갈등           | 인간적<br>흥미    | 도덕성           | 보상           | 국가<br>책임      | 위협           | 문제<br>해결      |                |                |
| 언론<br>사 | 경향<br>신문     | 29<br>(9.7)  | 19<br>(6.4)   | 88<br>(29.4) | 14<br>(4.7)   | 74<br>(24.7) | 22<br>(7.4)   | 53<br>(17.7)   | 299<br>(100.0) |
|         | 조선<br>일보     | 41<br>(16.6) | 19<br>(7.7)   | 87<br>(35.2) | 23<br>(9.3)   | 17<br>(6.9)  | 18<br>(7.3)   | 42<br>(17.0)   | 247<br>(100.0) |
|         | 한국<br>일보     | 16<br>(7.4)  | 19<br>(8.8)   | 64<br>(29.6) | 16<br>(7.4)   | 30<br>(13.9) | 22<br>(10.2)  | 49<br>(22.7)   | 216<br>(100.0) |
| 합계      | 86<br>(11.3) | 57<br>(7.5)  | 239<br>(31.4) | 53<br>(7.0)  | 121<br>(15.9) | 62<br>(8.1)  | 144<br>(18.9) | 762<br>(100.0) |                |

$\chi^2 = 48.563, df=12, p=0.000$

언론사별 언론 보도 프레임의 분석 결과, 세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도덕성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는 총 247개의 프레임 가운데 87건(35.2%)을 도덕성 프레임에 할애함으로써 경향신문(88건, 29.4%), 한국일보(64건, 29.6%)에 비해 더 높은 비중으로 기업의 도덕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 다음으로 국가책임 프레임이 74건(24.7%)이 많았으며, 문제해결 프레임(53건, 17.7%), 갈등 프레임(29건, 9.7%), 위협 프레임(22건, 7.4%), 인간적 흥미 프레임(19건, 6.4%), 보상 프레임(14건, 4.7%)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의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제해결 프레임(42건,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큰 격차 없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갈등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으며(41건, 16.6%), 보상 프레임(23건, 9.3%), 인간적 흥미 프레임(19건, 7.7%), 위협 프레임(18건, 7.3%), 국가책임 프레임(17건, 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일보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 다음으로 문제해결 프레임이 많이 나타나(49건, 22.7%) 조선일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국가책임 프레임(30건, 13.9%), 위협 프레임(22건, 10.2%), 인간적 흥미 프레임(19건, 8.8%), 갈등 프레임과 보상 프레임(각 16건, 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각 언론사별 차이는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먼저 세 언론사는 공통적으로 도덕성 프레임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 프레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이해주체들의 행위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행동규범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사의 프레임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가해기업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로펌, 연구진 등 1차 책임 주체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다룬 기사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경향신문은 기업의 도덕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책임 측면에 대해서도 집중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과 함께 문제해결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덕성 프레임에 있어 조선일보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각각 29.4%, 29.6%)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35.2%). 특히 기업의 대표 개인의 일화를 함께 소개하면서 기업 전체의 문제가 아닌 기업 대표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 것으로 부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구글코리아 대표, 알고 보니 ‘옥시파문’ 핵심인물” (5월 30일자 조선일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존 리 옥시 전 대표의 행적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존 리 옥시 전 CEO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5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세 명의 옥시 전 대표들의 도덕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여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기업 자체보다 기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 세 언론사가 문제해결 프레임에도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비해 갈등 프레임(41건, 16.6%)과 보상 프레임(23건, 9.3%)을 국가책임 프레임(17건, 6.9%)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 국가책임 프레임(74건, 24.7%)이 갈등 프레임(29건, 9.7%)과 보상 프레임(14건, 4.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일보의 경우 역시 국가책임 프레임(30건, 13.9%)이 갈등 프레임(16건, 7.4%)과 보상 프레임(16건, 7.4%)에 비해 두 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일보와 대비된다. 특히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규모나 사회에서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금전적, 심리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상 프레임의 경우 조선일보는 “옥시 배상안 논란...법 조계 배상액수 대체로 미달하는 수준” (8월 1일자 조선일보) 제하 기사와 같이 옥시

레킷벤키저의 배상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주장하는 피해 범위의 확대 논의에 대한 내용 없이 배상 액수의 논란만을 부각함으로써 기업의 피해 보상안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치환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에 비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조선일보와 달리 국가책임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이나 보상 프레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선일보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 예로 경향신문의 경우 조선일보가 옥시레킷벤키저의 피해자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다루던 7월말~8월초의 시기 동안 국가책임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는 16건이었으나, 기업의 피해보상안에 대한 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 그 내용 또한 옥시측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기업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옥시,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영유아 10억 원 배상...피해자측, 일방적 결정이며 꿈수 반발”, 7월 31일자 경향신문). 반면 조선일보의 국가책임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는 7월말~8월초의 시기 동안 단 한 건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박원순 ‘옥시 제품’ 퇴출 선언했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은 여전히 사용”, 8월 16일자 조선일보).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결과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 가운데 이에 대해 집중 보도한 국내 종합일간지 3개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구제와 관련법 개정 논의 등으로 진행 중인 사안으로,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조사를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나 이후 기업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16년 1월부터 검찰의 전담수사를 기점으로 이슈 재점화된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 일상속의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첫 사망사건이자 현대 산업 사회의 인위적 재난과 일상의 위험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는 공적 성격을 가진 이슈이다(최예용 외, 2012; 문성제, 2014).

이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을 수집하여 이슈 재점화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핀 후,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언론 보도 프레임의 분석을 실시하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은 주로 어떤 것이 등장하는지, 또 이것이 시기별로 혹은 언론사별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은 해당 이슈에 관련된 쟁점과 국가의 위험 관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및 언론사별로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담론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총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 중 사건 관련 보도량 상위 3개 일간지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기사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기사 553개가 이에 해당된다. 사건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8개월의 기간을 이슈점화-이슈확산-이슈진정 총 3개의 단계로 구

분하여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습기살균제 사건 보도의 양적 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간의 주요 일간지 보도량을 살펴 상위 3개의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 및 시기에 따른 보도량을 분석하여 이슈 진행단계와 언론사에 따른 보도 빈도와 추세를 살펴보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보도는 5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경향신문이 총 233건으로 수집된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42.1%를 차지하였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그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2014년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고 보도해온 매체로, 그러한 경향성을 유지한 채 2016년에도 꾸준히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 비해 6~70건 이상의 기사를 더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 경향신문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들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타 일간지에 비해 많은 양의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아도 역시 언론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5월을 전후하여 보도량이 증감하는 형태를 보였다. 5월에 특히 기사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검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소환, 구속과 같은 단순 사건이 단기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순 보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6월 이후로는 정치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문회 및 특별법 논의가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이 갖는 문제점과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상황 보도는 검찰수사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인 기사의 수는 5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시기별 추세는 뚜렷한 특징을 갖지만 분석대상 언론사들은 모두 유사한 흐름으로 상당량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주목 받는 중대한 이슈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슈 진행단계별로 언론 보도의 빈도 및 추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이슈확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슈진정 단계에서 조선일보가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큰 폭으로 기사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2. 가습기살균제 사건 보도의 심층성

그렇다면 언론이 주목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언론사들은 어떤 수준의 정보를 전달한 것인가? 우선 3개 언론사 전체의 심층성 요소를 빈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 553건 가운데 375건의 기사가 직접 취재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424건의 기사에서 실명/단체 정보원이 인용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분석대상 언론사가 능동적으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성 높은 정보원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사의 유형에서 350건의 기사가 단순 보도로 분류되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한 언론사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심층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인 것인가? 이 지점에서 분석대상 기사 전체에서 분석적 보도 또한 단순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도된 분석대상 기사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순보도 기사가 이어진 후 분석적 보도 기사가 후속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언론사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단편적인 정보와 상황 보고식의 단신이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여러 개 보도되는 동안 그러한 진행상황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기획, 심층탐사 기사가 후속기사로 등장하여 사안을 다시금 분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언론 보도에 있어 단순보도, 간접 취재 등의 방식에 따른 기사가 정보의 파편화, 개인화를 가져오고 질적인 정보 전달을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사안을 들여다볼 때, 단순히 통계적으로 단순보도 기사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질적 정보의 전달을 저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동일하게 기사의 관점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한 심층성이 약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 3. 가습기살균제 사건 보도의 프레임 논의

마지막으로 언론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인식의 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도덕성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239건), 그 뒤를 이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결과 및 대안을 구상하는 문제해결 프레임(144건), 세 번째로 국가책임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121건).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과 여러 정보원들을 통해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기업과 정부의 문제점이 폭로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이들 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주체들 간 대립적, 갈등적 요소를 강조하는 갈등 프레임(86건), 구체적인 수치나 경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슈가 갖는 심각성이나 위험상황을 부각하는 위험 프레임(62건), 개인 인물의 사연이나 일화를 조명하여 감정적 측면을 묘사하거나 정서를 환기시키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57건), 사건에 대한 손해나 피해 규모를 금전적 또는 심리적 보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상 프레임(53건)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진행단계별로 언론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한 시기는 이슈확산 단계였으며, 그 중에서도 도덕성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136건, 30.4%). 이는 다른 두 진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1차 책임 주체인 기업의 비도덕적 문제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이후 국회의 특별조사 진행 기간 동안에도 기업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참 등 무책임한 태도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건이 진행될수록 도덕성 프레임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문제해결 프레임, 국가책임 프레임, 위험 프레임은 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언론이 초기에는 사건의 초점을 기업의 도덕성에 맞추었다면 이후 사태의 해결 방안과 국가의 책임성에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추가 피해접수 규모의 증가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진단과 반성에 따른 위험성 인식을 반영하여 위험 프레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사건이 갖는 긴급성, 또는 막연한 공포, 대안 없음의 무력성에 집중하기보다 근본적인 피해구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제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겪은 재난을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구조적

개선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각 프레임의 언론사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모두 1순위로 많이 나타나는 프레임은 도덕성 프레임이며, 2순위는 경향신문의 경우 국가책임 프레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경우 문제해결 프레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도덕성 프레임의 비중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비해 6%p가량 높게 나타나 기업의 도덕적 측면에 좀 더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를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함께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기업 대표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언론사의 프레임 특징을 비교해 볼 때, 조선일보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비해 이해주체 간 갈등/대립 구도나 피해 규모를 금전적 보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은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며 특히 이슈진정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정부 책임을 심층분석하는 기사가 많았다.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이 사건이 속칭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명명되고 있다고 하여, 언론사들이 사회에 닥친 재난이 주는 무력성이나 위기, 두려움을 크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 프레임의 언론사별 분석결과, 한국일보가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사건이 주는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세 언론사 모두 이 프레임을 통해 인위적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4. 연구 결과의 함의

언론 보도 프레임은 단순히 언론이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인식의 틀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인식, 정부의 정책적 인식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 틀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러한 해석의 수용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 프레임이 다시 언론의 프레임과 상호작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구성할 수 있다(VanDijk, 1988; Pan & Kosicki, 1993; 우지숙·최정민, 2015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국가

책임 프레임 보도 성향 차이에서 볼 수 있듯 언론사는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식프레임에 기반하여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언론은 자신의 인식 프레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성을 깨닫고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법제도적인 변화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언론은 그것을 문제해결 프레임을 통해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관련 정부부처는 이 사건이 활발히 이슈화되고 난 이후 6,7월부터 피해자만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정부 책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지하고 그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대응 태도를 바꿔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가 하면 검찰 역시 기업 관계자들의 기소에서 그치고자 했던 수사 일정을 연장하여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것이 반드시 언론만이 할 수 있었던 변화는 아니지만,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 평가적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 인식의 통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한편 이슈확산 단계에서 분석대상 세 언론사의 보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전후 단계인 이슈점화 및 이슈진정 단계의 보도량이 이슈확산 단계의 보도량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보도 형식 가운데 대부분의 기사는 검찰 수사 과정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의 한계를 엿볼 수 있었다. 이슈재점화 이후 언론은 특정 시기에 경쟁적으로 단순보도 기사를 많이 내보냄으로써 소스 경쟁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 브리핑, 또는 기업이나 피해자단체의 기자회견 등 형식적이고 취재하기 쉬운 소스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정보들을 보도하는데 역량을 낭비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라는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미증유의 재난에 대해 보도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이로 인한 인위적 재난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있는 집행과 시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도량, 심층성, 프레임 이 세 가지 측면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의의가 있다.

## 제 2 절 연구의 한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프레임 설정에 있어 배타적이지 않아 중복으로 프레임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언론 보도의 다양한 프레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러한 양상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덕성 프레임과 국가책임 프레임에서 정부나 기업 등의 책임소재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논했는지 상세하게 연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500건이 넘는 기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코더 간 신뢰도 검사를 통해 분석틀을 정교화하고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편향이 전체 기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입되었을 여지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프레임 분석 연구에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향후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추가하여 좀 더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설계된 분석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정책적 함의를 추가적으로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 프레임 중심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1): 156-196.
- 권설아, 김지은, 이재은. (2016). 한국에서 위기대응과 정부책임성. 『위기관리논집』 12(2): 17-34.
- 김병섭, 김정인. (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99-120.
-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 김영욱, 안현니, 함승경. (2015). 언론의 세월호 참사보도 구성: 프레임, 정보원, 재난 보도준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7): 51-77.
- 김원용, 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166-197.
- 김춘식, 유홍식, 정낙원, 이영화. (2014). 『재난보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태원, 정정주. (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99-224.
- 김현정, 한미정. (2014). 위기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신문의 보도행태 분석: 구미 불산 누출 사례. 『한국위기관리논집』 10(11): 21-53.
- 남궁 근. (2014). 『행정조사방법론』. 파주: 법문사.
- 노진철. (2014).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본 재난의 구조적 이해. 『국가위기관리학회』 6(2): 3-15.
-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 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 한국언론

- 재단: 147-220.
- 박재영, 안수찬, 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 주요 신문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26(2): 33-66.
-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율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제30집: 83-12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집담회 자료집. (2016). 『가습기살균제와 공중보건의 위기』.
- 안은영. (201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위험보도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지숙, 최정민. (2015).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5개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2): 315-343.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 86-128.
- 유진솔. (2015). 갑을논란 보도의 공정성과 심층성에 관한 연구: 조직의 위기 책임성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순진, 이동하. (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7-62.
- 이건호. (2008). 한·미 신문 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107-129.
- 이선민, 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 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4): 5-66.
- 이연. (2010). 재난방송의 역할과 과제. 『방송문화』 343: 10-15.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85-153.
- 이준웅.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링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1): 133-162.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조수선, 김유정. (2004). 온라인신문의 의제 및 의제속성 설정 연구: <조선닷컴>과

- <오마이뉴스>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48(3): 302-329.
- 조희연. (2005). 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의의 인식론적 성격과 쟁점들. 『경제와 사회』 제67호: 298-334.
- 최예용, 임홍규, 임신예, 백도명. (201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18(2): 166-174.
- 한국신문협회 연구보고서·세미나 공개 자료 <http://www.presskorea.or.kr>

## 국외 문헌

- Altschull, H. (1984). *Agents of Power: The Role of the News Media in Human Affairs*. New York: Longman. (강상현, 운영철 역. 1993. 『지배 권력과 제도 언론: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쟁점』. 서울: 나남.)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2.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Thousand Oak, CA: Sage. (홍성태 역. 2004.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51-58.
- Krippendorff, K. (1989). Content analysis. In E. Barnouw, G. Gerbner, W. Schramm, T. L. Worth, & L. Gros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403-40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McCombs, M. E. (2004).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Malden, MA: Blackwell. (정옥희 역. (2012). 『아젠다 세팅: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는 숨은 권력』. 서울: 엘도라도.)
- McLeod, D. and B. Detenber. (1999). Framing Effects of Television News Coverage of Social Protest.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3-23.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05, 2006). *The State of the News Media: An Annual Report on American Journalism*. [Online],

[www.journalism.org](http://www.journalism.org)

Picard, R. G. (2006). Cash cows or entrecote: The influence of interdependency on physical and virtual newspaper.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nternational Symposium). Transcript retrieved Oct. 27, 2007 of Online Journalism from <http://journalism.utexas.edu/onlinejournalism>.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Abstract

# A Study on News Reports concerning Health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Content Analysis of Three Major Newspaper Reports-

Hyunmi Kim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what kind of information about this public issue media delivered and which media frame worked in our society to see indirectly which cognitive frame our society members have,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ews reports concerning the health damage cas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The catastrophic health damage case, called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or “Sewol Accident in home”, was first reported at April 2011 by a general hospital in Seoul calling investigation to KCDC. For about 8 months, from September 2011 to April 2012, 174 victims was reported(Choi et al, 2012), and then in 2014 KCDC

announced that 127 victim cases(57 deaths) confirmed and 41 victim cases(18 deaths) was highly related. This health damage case was caused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using chemical substances like PHMG or CMIT/MIT, and almost happened to pregnant women and children under three. It is evaluated the first biocide damage case in Korea, even in the world, and the important public issue about a disaster caused by danger factors surrounding our daily life such as living chemical products(humidifier disinfectants, chemical detergent, injection type pesticide, and so on). Korean society is seemed to begin to think about this artificial danger and the system that controls this danger through this damage case, furthermore, discuss what problem we have responding to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our health and what we need to improve the rule and system in order to prevent disaster like th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top three daily newspapers that reporte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from January 2016, when the prosecutor's re-enactment began. to August 2016, when the hearing conducted in Assembly about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It numbers 553 articles, including Kyunghyang Daily, Chosun Daily and Korea Dai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reports, the analysis period of 8 month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issue flaming, issue diffusion, issue calming. After analyzing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event-related information delivered by the media after the issue re-flaming,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media fram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found out which frames mainly appeared and what characters they had through each issue progress stage and each media level.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dia communicate information about issues and risk management in our society, and how changes in the media reporting frame occur at the stage of the event

and at the media level. As a result, this study trie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case and policy direction of the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newspapers with different political tendencies show similar trends such as reporting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at the stage of issue diffusion. However, although it is a public issue that draws attention in society, it can be seen that each media company has different focus part in the issue process, by showing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reports in the issue-calming stage. Secondly, in delivering the health damage incident on humidifier disinfectants, newspapers were conveying reliable information through the method of directly covering the real-name information sources. The proportion of simple report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nalytical reports, but in-depth analysis and investigative report followed. It means that they are trying to convey qualitative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fact that only a fragmen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at a specific stage to a topic that becomes a topic. Finally, the media fram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 used a lot of moral frames and problem solving frames, national responsibility frames as a whole. As the events progressed, the proportion of moral frames decreased, and problem solving and national accountability frames increased.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social consciousness was increased to support the progress for victim compensation and clarify the truth and to improve and diagnose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ociety. In addition, the Chosun Daily viewed the case with a focus on mor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conflicts of interest groups, and monetary rewards in comparison to two relatively different media, while the other two media reported that they focused more o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rame than the former. This shows that the perspective of the case about progress and problem solving direction differs for each media company.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all three newspapers showed that they are focusing on reports that emphasize problem solving and raise awareness of artificial disasters rather than revealing irritation, crisis or helples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dia tried to reflect the cognitive frame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while convey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based on their cognitive frames about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cas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is case, the media is not the only subject of change, but the media has provided feedback on government policies and systems and has become a channel of recogni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what kind of awareness was shared in our society through analysis of media reports about disasters such as damage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Moreover, this study means that in order not to repeat this disaster again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reliably implement public policy by government controlling and managing possible danger from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to try to change civic consciousness and action.

**Keywords:** humidifier disinfectants, inhalation toxicity, media reports, framing, media frame, depth of reporting, salience

**Student Number:** 2014-23551

## [부 록]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데이터 코딩 프로토콜

\*코딩 분석 기간: 2016년 10월 14일~12월 19일

\*분석 대상: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3개 일간지

수집 대상 기사의 보도 기간: 2016년 1월 1일~8월 31일

|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한국일보 |
|---------|------|------|------|
| 총 기사 수  | 233  | 173  | 147  |
| 표본 기사 수 | 23   | 17   | 15   |

#### \*코딩 지침

1. 기사 ID: 분석대상 기사별로 표기된 번호 참조

2. 매체명: ① 경향신문 ② 조선일보 ③ 한국일보

3. 보도일자: ○○○○ ○○ ○○ (YYYY/MM/DD)

4. 기사제목 (오픈 코딩)

5. 심층성 항목

-첨부된 문서의 항목별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

1) 기사의 보도 유형

① 단순 보도 ② 분석적 보도

2) 기사에서 나타나는 취재방식

① 간접 취재 ② 직접 취재

3) 기사에서 나타나는 정보원

① 실명/단체 ② 소속 익명 ③ 불특정다수/단순 익명

## 6. 프레임 항목

-첨부된 문서의 항목별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

- ① 갈등 프레임    ② 인간적흥미 프레임    ③ 도덕성 프레임
- ④ 책임 프레임    ⑤ 보상 프레임    ⑥ 위협 프레임    ⑦ 문제해결 프레임

**<언론 보도 심층성 요인의 조작적 정의>**

| 요인        | 조작적 정의        |  |
|-----------|---------------|--|
| 2. 기사의 유형 | ① 단순 보도       | -단신, 스트레이트 기사<br>-어떤 견해나 해석이 덧붙이지 않는 경우  |
|           | ② 분석적 보도      | -박스, 기획, 심층탐사 기사<br>-해석적, 판단적 표현의 사용<br>-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또는 관계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사안에 대한 견해를 비추는 경우<br>-기자의 견해나 해석을 덧붙이는 문장이 주를 이루는 경우 |
| 2. 취재 방식  | ① 간접 취재       | -보도자료, 서면브리핑<br>-출처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br>-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br>-성명서 발표 (장소가 마련되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은 경우는 제외)<br>-온라인, SNS 인용                |
|           | ② 직접 취재       | -기자회견 등 현장 취재, 단독 기획 보도, 전화/대면 인터뷰 등<br>-자료 정보의 출처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
| 3. 정보원    | ① 실명/단체       | -소속과 성명이 모두 표기된 경우<br>-정부기구나 사업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집합적 정보원의 조직명이 명확하게 반영된 경우  |
|           | ② 소속 익명       | -소속은 밝혀졌으나 정보원의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br>-정부기구나 사업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집합적 정보원의 조직명이 명확하나 ‘관계자’ 등 정보원의 성명은 드러나지 않은 채 조직을 대표하는 경우            |
|           | ③ 불특정다수/단순 익명 | -소속과 정보원 성명 모두 표기되지 않는 경우<br>-소속 조직명과 정보원 성명 모두 명확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된 경우<br>-정보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정보가 전달된 경우 (“~라고 전해졌다”)      |

〈언론 보도 프레임 분류와 조작적 정의〉

| 분류         | 정의  |
|------------|---|
| 갈등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주체들 간 대립적, 갈등적 요소의 강조</li> <li>· 피해자와 기업 간 갈등, 피해자와 정부 간 갈등, 국회와 정부 간 갈등, 여당과 야당 간 의견 대립과 갈등</li> </ul>  |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인물을 조명, 감정적 측면을 묘사</li> <li>· 정서적 측면을 환기</li> </ul>   |
| 도덕성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li> <li>· 기업이나 연구진, 로펌 등의 증거 은폐, 왜곡, 실험결과 조작, 소비자 민원 묵살, 허위 광고 지속적 보도 등</li> </ul>  |
| 책임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재점화 이후 밝혀지는 정책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 주체를 지목하고 대처 촉구</li> <li>· 관련 정부부처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관련법 개정안 계류 등 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책임 소재</li> </ul>   |
| 보상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업의 보상논의 관련</li> <li>· 피해의 규모나 사회 내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금전적/심리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li> </ul>   |
| 위험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피해자 발생 규모, 관련 화학물질의 시중 유통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 또는 구체적 수치, 경향성</li> <li>· 이슈가 갖는 심각성, 위험상황의 수준을 중점 보도</li> </ul>   |
| 문제해결 프레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해결 방안 논의 혹은 결정</li> <li>·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 규명, 처벌 논의, 청문회 및 특별법 제정</li> <li>· 시민사회의 자발적 불매운동,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인식 및 소비성향의 변화,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안</li> <li>· 비도덕적 기업 규제 위한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등</li> </ul> |